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총동창회 지표 : 참여·협력·영광

<http://www.snua.or.kr>

2000년 3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264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발행인 金在淳/편집주간李世震/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121-04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FAX : 703-0755



지난 2월 26일 열린 모교 제54회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밝은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커버스토리 19~20면)

“새내기 동문 여러분, 우리의 희망입니다”



며칠 전 저녁자리에서 한 친구가 말했다.

『사람 팔자란 결국 만나는 사람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아. 나이를 먹을수록 스스로

선택해 만나는 사람보다는 저절로 만나지게 된 사람들에 의해 팔자가 결정된다는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되는 군』

그의 말인즉 사람은 누구를 부모로 해서 태어났는가, 어떤 형제·자매·남매와 함께 자라고, 어떤 삼촌·사촌...들과 살아가는가에 따라 1차적으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런 단계를 거쳐 사람은 배우자라는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에 의해 또 평생동안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배우자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장인·장모·처남이나 시부모·시댁가족들은 자기가 선택할 여지없

이 저절로 만나지게 되는 사람들이다.

사람은 또 학교를 통해 스승, 동창, 선·후배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기 마련이고 여기서도 평생에 걸쳐 큰 영향을 받는다. 학교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쳐도 동창, 선·후배들은 거기서 「만나지게」 된 사람들이다.

소중한 「만남의 인연」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 상사, 선·후배들도 사람의 평생에 큰 영향을 준다. 직장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은 그의 선택 밖인 것은 학교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만나는 사람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고 만나는 사람의 대부분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만나지게」 된 사람들이란 것이 그 친구의

얘기였다.

그의 얘기에 다른 친구들은 머리를 끄덕이면서도 『이 친구가 60이 다 돼가더니 운명론자가 돼가는구먼』 『그 말이 다 맞는 소리는 아니야』라고 한마디씩 거들었다.

『사람의 평생이 만나는 사람에 의해 좌우된다는 자네의 말은 맞네. 그러나父子간이든 동창간이든 그 만남과 관계의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그 사람 자신에게 달린 것 아니겠나』

『맞아. 어떻게 만났든 그 인연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게 중요해』—이날 얘기는 대충 이렇게 매듭지어졌다.

바야흐로 졸업과 입학의 계절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에, 대학에 들어가 새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대규모의 대량 「만남의 인연」이 맺어진다. 평생에 영향을 줄 만남의 인연을 각자 모두 소중하게 가꿔나가야겠다. (赫)



몇 년전 자연대를 졸업한 여학생이 의대에 합격했다가 포기하고 지방대 의대를 택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생에게 주어지는 프리미엄이 싫어서」라고 돼있었으나 과연 그랬을까 싶다.

혹시 「그렇게 좋다는 서울대를 졸업했는데도 취직처는 마땅치 않고 공리 끝에 의대에 합격했지만 서울 생활이 고달픈데다 등록금과 생활비가 만만치 않아 결국 예과 과정을 면제해주고 본과로의 편입학을 허용한 고항근처 대학을 택한 건 아니었을까」라고 한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올해 의대 입학생 중 여학생이 50%라는 사실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우먼파워의 약진이라고 보는 한편에 「의사가 별 볼일 없어져서」라는 견해가 만만치 않은 게 그것이다. 힘만 들고 보상은 적어 남자들이 기피하기 시작한 반면 여자들은 그나마 전문직을 택하는 게 낫다는 사실 때문에 길고 험한 길을 택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근래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는 많이 달라졌다. 직장에서의 남녀차별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고 금녀구역 또한 법적·제도적으로는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일부 여성들의 활약상에 대한 매스컴의 눈부신 보도와는 달리 대졸여성들의 취업문은 한없이 좁고, 기존 취업



朴聖姬(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여성들의 상위직으로의 진입장벽 또한 여전히 두텁다. 여학생들이 의대나 교대, 사대로 몰리는가 하면 전공에 관계없이 사법고시나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현상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률, 특히 대졸여성의 경제활동률은 OECD 가입국 중 꼴찌에 가깝다. 정부투자기관의 과장 이상은 1%가 넘을까 말까 할 정도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일부에선 오히려 이 같은 지침이 「여성의 정규직 취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시각조차 있는 형편이다.

여성의 능력 발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규제보다 가부장제 시대의 억측과 편견에 얽매여 남녀의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남성들의 의식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 자리를 찾지 못해 아까운 재능과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대졸여성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여성들이 원하는 건 특별대우가 아닌 공정한 평가에 의한 정당한 기회 제공이다. 열린 사고로 대졸여성들의 「막강한 힘」을 활용할 기업을 많아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본보 논설위원)

여성 취업의 걸림돌

동문칼럼

“풍부한 상상력이 인터넷 시대 생존 전략”

디지털 밀레니엄의 충격이 해일처럼 밀려오고 있다. 2000년 새해 아침을 맞이한 지 두 달이 지났건만, 세상은 「닷컴 컴퍼니」 「테헤란 밸리」 「시장가치」 등 신조어가 깃발처럼 나부끼는 인터넷 혁명에 온통 휘말려 있다.

확실히 이것은 혁명이다. 혁명을 겪는 구성원들은 과거의 전통이나 생활양식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며, 기업 역시 새로운 사회조직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기업들이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아도 어느 시기든 급변하는 환경에의 신속한 적응과 새로운 사업 논리의 창출이 생존의 요건으로 대두되어 왔음을 확인하게 된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구성원 각자가 자유로운 바탕위에서 창의성을 맘껏 펼치도록…톱다운 커뮤니케이션을 대신하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네트워크 조직의 실현이 필수 불가결”

70~80년대의 「만들면 팔리는 시대」와 세계 곳곳을 발로 뛰던 「종합상사의 시대」에서 90년대에는 할인점 등 새로운 업계의 등장과 글로벌 차원의 무한경쟁을, 최근 IMF 국면에서는 파나는 구조조정을 경험하고 또 극복해 왔다.

그리고 2000년에 들어와서는 가쁜 숨을 몰아쉬는 새 없이 인터넷 관련 첨단기업들의 등장과 전통적인 산업계 패러다임이나 구분을 무시하고 새로운 경계선을 그어나가는 그들의 아메바적인 변신과 기동력을 지켜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혁명 속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 그것은 새로운 기

술에 대한 두려움을 대신할 적극적인 관심과 고민, 또 사업의 기본이 되는 고객과 구성원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일 것이다.

모든 기술을 이해하기는 힘들지라도 인터넷에 대한 관심과 상상력을 발휘할 경우, 인터넷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 사업에 영향을 미칠 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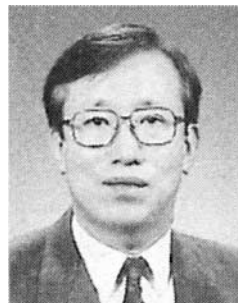
다이얼패드, 역 경매, 웹콜 센터 등 인터넷 시대에 탄생된 새로운 서비스는 물론, 인터넷 입찰, ORM 등 오프라인에서의 아이템을 온라인에 적용한 사업 등이 고객에게 깊고 넓은 만족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에게는 괄목할 효율성과 경쟁력을 부여해 주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제는 진정으로 고객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

풍부한 정보로 무장한 고객들은 기업이 더욱 새로운 감동을 전해주기를 강요하고 있다. 로열티 고객이라 해서 차치 방심할 때, 단 한번 클릭으로 고객들은 손땀을 수 없는 다른 세상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 내부적으로는 구성원 각자가 자유로운 바탕 위에서 창의성을 맘껏 펼치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톱다운(Top Down) 커뮤니케이션을 대신하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네트워크 조직의 실현이 필수 불가결하다.

결국 기본에의 충실과 자유로운 상상력은 인터넷 성공 비즈니스라는 과량새를 찾아내는 키워드이자, 세대를 막론하고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상징이 된 인터넷 시대의 생존 전략인 것이다.



柳志賢

(74년 文理大卒)

LG유통 전무

2000년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정기총회

3월 17일(金) 오후 6시 30분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정기총회 안내---

- 일시 : 2000년 3월 17일(金) 오후 6시 30분
- 장소 :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
- 안건 : ① 회장단을 비롯한 임원 개선
- ② 제2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
- ③ 1999년도 결산 및 2000년 사업계획 보고
- ④ 기타 사항
- 회비 : 2만원. 동문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동창회 제141차·관악회 제80차 상임이사회는 정기총회 개최전(오후 5시) 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랄드룸에서 개최됩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金在淳



韓興善동문

아내·4남매·며느리·두 사위가 동문

한국개발금융, 한국투자금융을 거쳐 작년 6월 한국개발리스 사장을 끝으로 퇴임한 韓興善(61년 工大卒)동문은 한평생 자신의 길을 개척해나간 독심있는 사업가이며, 특히 금융업뿐만 아니라 건설 분야에도 관여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발전 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아내 裴貞姬(61년 工大卒)동문과의 사이에 1남3녀를 둔 韓동문은 자녀 또한 모두 동문으로 주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韓동문은 자녀들이 모교에 입학하기까지 공부 측면보다는 『최선을 다하라. 원칙에 벗어나는 일은 절대 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라』는 말만 했을 뿐 다른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裴貞姬동문은 『자녀들이 속 끓인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던 길을 가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입니다. 다른 부모처럼 가정교육을 따로 시킨 것도 아니고, 단지 말없이 본인들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도록 뒤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준 대단한 아버지』라고 남편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각종 과학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을 지니고 있는 장남 韓辰勇(87년 社會

大卒·미시건大 부교수)동문은 모교 사회과학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으며, 우수 졸업자에게만 수여되는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수재로 아내 丁允宣(88년 人文大卒)동문과 함께 하버드大 박사과정을 마치고 올해 9월부터 브라운大의 강단에 설 예정이다. 특히 韓辰勇동문은 남자는 무조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부친의 엄명(?)을 받고 바로 휴학계를 내고 귀국해 석사장교로 군복무를 마치기도 했다고.

자녀 중에서 가장 성격이 명랑한 차녀 韓昭苑(91년 社會大卒)동문은 남편 崔麟(86년 工大卒)동문과 함께 일리노이주립大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현재 대학 강사로 활발히 활동중이다.

한편 언니와 마찬가지로 심리학을 전공한 막내딸 韓靜苑(95년 社會大卒·미네소타大 박사과정)동문에 대해 韓興善동문은 『어릴 적부터 키가 큰 탓으로 장녀로 자주 오인 받기도 했으나 주변의 말과 걸맞게 속이 아주 깊어 1등 며느리감』이라고 자랑했다.

유일하게 국내에서 살고 있는 장녀 韓惠遠(93년 醫大卒·모교병원 소아과)·崔榮眞(89년 醫大卒·모교병원 내과)부부는 주말이 되면 항상 부모와 함께 여덟살 된 손녀를 데리고 자주 외식을 하는

편이라고.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했을 것 같은 韓惠遠동문은 의과대학 시절 오케스트라 비올라 단원으로 활동했을 정도로 음악에도 남다른 조예가 깊다.

『딸 내외가 항상 병원에 있는 바람에 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뒷바라지하게 됐지만 전혀 힘들지 않다』는 韓興善동문에 게서 삶의 여유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韓興善동문은 23년 전에 현재 살고 있는 방배동 아파트로 이사왔는데 당시에는 뒷산에 시끄러울 정도로 많은 까투리가 둠지를 틀고 있었고, 집안에서는 아이들로 꽉 찬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정다운 이야기소리가 항상 끊이지 않았다고. 과외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은 학교를 마치고 모두 일찍 집에 들어와 저녁식사 시간이면 밤이 늦도록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나누던 때가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자녀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韓興善동문. 비록 지금은 아내와 함께 손녀의 재물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도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배운다는 韓동문 부부의 활기찬 모습을 통해 아직도 그들 앞엔 제2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表)



좌로부터 韓昭苑·韓惠遠·裴貞姬·韓興善·韓辰勇·韓靜苑동문.



대전·충남 지부

동창회 첫 지부로서 70년 창립 기금 1억 모은후 장학사업 계획도

글 : 吳應準(62년 藥大卒·제일산업 회장)간사장

대전·충남지부가 탄생한 시기는 1970년 9월 26일로 총동창회 지부로서는 첫 번째의 결실이다. 이후 포항, 울산을 위시해 각 지역의 동창회 지부가 점차 결성되었으니 본회의 탄생이야말로 동창회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자부해본다.

창립총회 당시 모교의 崔煥總장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참석해 본회의 앞날을 축하해준 기억이 새롭다. 초대회장은 制憲國회의원을 역임한 故 成樂緒(30년 京城帝大卒)동문이었고 부회장에 李俊鶴(70년 經大院卒·태아산업 회장)동문, 간사장에 現회장인 吳熙弼(53년 文理大卒·前대전대 총장)동문이 선임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창립 이듬해에 첫 사업으로 명부를 작성, 배포했는데 그때 파악된 동문이 대전에만 4백47명이었다. 그후 점차 경부·호남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대덕연구단지와 정부종합청사, 3軍본부, 3軍대학 등이 이곳으로 이전되거나 설립되면서 동문 수는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 대략 추산하기로는 4~5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역점사업으로는 단과대학동창회의 결성을 첫 번째로 들 수 있다. 이들의 성공적인 결성으로 이제는 많은 단과대학동창회들이 활성화됐고 단과대 집행

부 임원들이 지부 이사로 참여해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사회는 약 1백여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①명부 발간 및 배포 ②테니스 대회 ③바둑 대회 ④등산대회 ⑤골프대회 ⑥장학금지급 ⑦모교의 각종행사(대전 개최시) 지원 ⑧동문 기관장 환영, 환송회 개최 ⑨기금 모금 등의 많은 일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진선골프대회(관악회)는 지부 부회장인 姜敏求(62년 行大院卒·유성골프장 회장)동문의 특별배려로 매월 넷째 토요일에 갖고 있으며, 이 지역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동문을 비롯 다수의 동문이 참여하여 동창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지부 기

금마련의 필요성을 인식, 지난 83년 충남지사로 있던 柳興洙(65년 法大卒·국회의원)동문의 주관으로 시작해 현재 약 6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1억원 확보를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기금의 과실금과 모임 때마다 스폰서를 해주는 동문들 덕분에 그 꿈은 멀지않아 보인다. 1억 기금이 확보되면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부 탄생 어언 30년...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제는 소가 밝아도 꿈쩍하지 않을 만큼 굳건한 기반이 마련됐다. 미래에 걸맞은 평을 듣던 본회가 콘크리트처럼 강한 결속력으로 이 지역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동창회로 발전했다.

이제 의약계, 법조계, 교육계, 실업계, 행정계, 금융계 등 이 지역의 각 분야에서 모교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로 인해 모교가 더욱 빛을 발하리라 기대한다. 특히 대전에 부임한 기관장 동문들이 이 지역 동문들의 성원으로 대부분 영전하여 중앙무대에서 더 큰 활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기 이를 데 없다.

본회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서울대총동창회의 첫 지부답게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앞줄 좌로부터 다섯 번째 吳熙弼회장, 둘째줄 좌로부터 다섯 번째 필자.

2백40명에 장학금 3억2천여만원 전달

金회장 “여러분은 지식정보화시대 이끌 주역”



본회(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金在淳)는 지난 2월 24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0학년도 1학기 장학금 및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具英秀(자연대 수학과 3년)군을 비롯한 1백43명에게 2억1천6백80만5천5백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金회장은 축사에서 『최근에 젊은 세대가 일으킨 인류역사상 초유의 세대혁명, IT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은 지식정보화시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물결을 이끌어갈 사람은 오늘이 자리에 함께 한 여러분』이라고 강조했다.

모교 金安重학생처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학생활은 동창회원이 되기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말하고 『모교가 21세기 세계 속의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마음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대동창회 李吉女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후배들이 21세기 무한경쟁의 소용돌이를 헤치며 국가발전을 선도해 나갈 큰 일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具英秀군은 장학생을 대표해 『앞으로 지식습득은 물론 철학이 있고 감동이 있는 인간이 되어 선배님들이 현재 사회의 모습을 창조하셨듯이 미래 사회의 모습을 창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崔主鎬명예회장, 金在淳회장, 李聖秀·洪性大 부회장, 재단법인 관악회 白文基·尹美子이사, 본보 孫一根·李炯均논설위원을 비롯해 李吉女の대동창회장, 陸寶根자연대동창회장, 鄭八道AIP동창회장, 간호대동창회 李明善상임이사, 태성고무화학 鄭哲圭회장, 청아치과병원 金讚淑원장, (주)일성 俞益善부사장, 상영무역 李鍾基

사장, 국민카드 李明雨부사장, 조흥은행 金秀敬도화동지점장, 모교 치대 柳寅哲교수, 드림위즈 李燦振사장, 가정법률상담소 金秉順운영이사, 아남그룹 金柱濤사장, 동창회 李世震사무총장, 모교 金安重학생처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장학생 金聖奉(음대 2년)군이 「오 솔레미오」를 축가로 선사해 선·후배 만남의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한국청소년연구소 朴明潤(76년 保大院卒)이사장이 99년 12월 5천만원을 출연해 설립한 「朴明潤 특지장학금」은 3월중에 석·박사 학위논문 우수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박동문은 모교 추천을 받아 석사학위 논문 우수자 3명에게 50만원씩, 박사학위 논문 우수자 1명에게 1백만원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각 단과대학(원)동창회가 97명에게 1억3백44만2천5백

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해 2000년도 1학기 장학금은 총 2백40명에게 3억2천24만8천원이 지급됐다.

각 단과대학(원)동창회에서 지급한 장학금과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가정대동창회(회장 李義淑)=4명:6백36만6천원 ▲간호대동창회(회장 楊銀淑)=4명:5백16만5천원 ▲법대동

창회(회장 李英熙)=낙산 장학생 29명:2천6백73만2천5백원 ▲상대동창회(회장 高炳佑)=향상 장학생 30명:3천만원 ▲수의대동창회(회장 李佑宰)=4명:9백27만3천원 ▲약대동창회(회장 李禮植)=5명:2백50만원 ▲음대동창회(회장 李南洙)=1명:1백76만7천원 ▲치대동창회(회장 池憲澤)=4명:8백76만3천원 ▲대학원동창회(회장 金圭植)=2명:2백39만7천원 ▲행정대학원동창회(회장 韓昇洙)=2명:2백97만9천원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金錫洪)=5명:2백50만원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金相賢)=7명:5백만원

제2회 「관악대상」 1차 운영위원회 총 2개 단체·47명 후보 올라 3월 8일 회의서 수상자 선정



지난 2월 25일 오전 8시 신라호텔 23층 오키드룸에서 제2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제1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본회 金在淳회장을 비롯해 韓斗鎭·洪性大·崔秉烈부회장, 관악회 白文基이사, 본보 孫一根·朴世熙·李炯均是설위원, 林光洙공대동창회장, 尹勤煥농대동창회장, 崔泰祥사대동창회장, 朴明子간호대동창회 부회장, 金讚淑 前치대동창회장 등이 참석했다.

李世震사무총장은 이날 현황 보고를 통해 제2회 관악대상 후보로 참여부문 7명, 협력부문 2명, 영광부문 10명, 부문 구별 없이 2명이 추천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상하지 못한 후보가 자동으로 재추천됨에 따라 전체 후보는 참여부문 2개 단체·12명, 협력부문 12명, 영광부문 19명, 부문 구별 없이 4명이 추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다면·다층적 균등 및 단과대별·성별 안배를 고려하고, 현 동창회 임원 및 관악대상 운영위원은 가급적 후보를 사양하기로 합의했다.

운영위원들은 각 부문별 수상후보를 2~3명 내외로 압축, 좀더 세밀한 검증을 통해 3월 8일 개최될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동창회 국민카드 사업 7천4백만원 결실



본회(회장 金在淳·사진 左)는 지난 2월 24일 동창회관에서

국민카드사 부담으로 적립해 마련한 것이다. (變)

국민카드사(부사장 李明雨·74년 工大卒·사진 右)로부터 「서울대총동창회 국민카드」의 기부금 7천3백96만4백19원을 전달받았다.

이 기부금은 99년 1년간 동문들이 사용한 카드 이용금액 중 일정액을 국

미술작품

黃南彩 作

(작가 약력)

- △75년 모교 미대 응용미술과 졸업
- △86년 목판화 6인전
- △88년 현대목판화전
- △93년 불교미술인협회전, 관화사랑전, 홍윤전, 관화와 시의 만남전, 현대성의 숨소리전
- △94년 생명의 근원전
- △95~97년 서울관화 미술제
- △97년 대한민국 예술제 미술제, 경기여고동문전, 선면전
-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



「그리는 것은 서쪽에 있다」 45X61cm, 목판·지판·필라쥬, 1997.

건강을 지킵시다

자궁경부암 세포진

검사의 허와 실



李泰浩(78년 醫大卒)
이태호산부인과의원장

자궁경부암은 현재 한국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의 22%를 차지하는 가장 빈도가 높은 암이다. 일반적으로 자궁경부암은 그 전구병소인 자궁경부 상피내종양으로부터 오랜 기간을 걸쳐서 침윤암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음으로써 자궁경부암 전구병소의 조기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고 아울러 침윤암으로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

1943년 Papanicolaou가 자궁경부암을 조기진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최초로 고안한 이래 현재까지도 가장 효율적인 자궁경부암의 선별 검사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세포진 검사의 문제점으로는 검사 자체의 높은 위음성률,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검진 체계의 미비, 매 검진의 시간적 간격보다 짧은 진행 기간을 갖는 침윤암의 출현,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전구병소의 발생 증가 등이 지적되고 있다.

적절한 세포진 검체의 채취를 위하여 우선 검사 받기 48시간 전의 질 세척과 질염 치료제 사용은 금지해야 하며, 가능하면 생리혈에 의한 검체의 부적절함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생리기간 이외에 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폐경기 여성의 경우 여성호르몬인 난포호르몬의 결핍으로 세포가 많이 위축되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검사 전 1~2주간 난포호르몬 질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포진 검사의 대상은 최근 성

접촉에 의한 자궁 경부의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감염증이 자궁경부암의 주요한 발생 인자임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18세 이후의 성 접촉이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정기검진의 대상이 되며, 자궁경부암의 발생 연령을 고려할 때 70세까지는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70세 이후에는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세포진 검사의 이상이 없었다면 더 이상의 검진은 권장되지 않는다.

세포진 검사의 간격은 자궁경부암 전구병소의 발생 빈도와 세포진 검사의 위음성률을 고려할 때 최소한 1년에 1회이며, 세포진 검사에 이상이 발견되면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또는 질 확대경 검사 등의 추가 검사를 시행하여 세포진 검사의 낮은 민감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이상 증세의 치료 후에는 3개월 내지 6개월 간격으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 자궁경부 전구병소 및 침윤암으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재발의 관찰을 위하여 2년 동안 3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락처 : 032-571-1187)

추억의窓

남학생적어 혼성팀으로 체육대회 나가
보디가드 자처하며 희소가치 누리기도

金雄吉(64년 音大卒)추강피아노학원 원장

지금의 모교는 공기 맑고 전망 좋은 관악산 기슭에 그 동지를 틀고 배움의 요람으로서 그 역할에 온 정열을 쏟고 있지만, 60년대 전차와 시발 택시가 다니던 그 시절의 음악대학은 을지로 6가에 있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앞에는 국립의료원(당시에는 메디칼 센터라고 불리웠다)이 있고 옆과 뒤에는 지금의 평화시장 자리한 곳이었다.

음악대학의 정문. 대형 유리문 된 두 쪽의 문을 밀고 나와 2개의 계단을 내려서면 바로 앞에 보이는 철문이 하나 있으니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이것이 대학 정문이었다. 문을 나서는 순간 평화시장의 골목과 군데군데 좌판이 널려있는 길이 이어졌다.

3층 짜리 단일 건물이었던 학교는 1층에 교무실과 화장실 그리고 조그마한 강의실 5개가 있었고 2층에는 악기실과 3개의 강의실, 3층에 연습실이 자리잡고 있었다. 뒤편에는 분수대가 있고 농구대도 하나 서있었는데 콘서트홀이 세워지면서 학교의 운동장이라고 해야 할 지 가정집의 마당이라고 해야 할 지 모호한 지경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들은 남학생이었음에도 한켠에 있는 휴게실에 모여 수다떠는 분위기에 익숙해졌다.

전공 과정의 특성상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훨씬 많았던 관계로 대학교 전체 체육대회 때는 애를 먹었다. 특히 줄다리를 할 때는 혼성팀을 만들어 출전하곤 했는데 당시 상대팀은 항상 100% 남자로만 구성된 팀이었다. 하지만 막상 시합에 임하면 막상 막하의 힘을 보여주곤 했다.

필자가 속한 60학번 학생들이 63년 가을 鄭回甲교수님의 인솔로 수학여행을 가게 됐다. 말이 수학여행이지, 1백25명의 학생 가운데 겨우 16명이 다녀왔으니 지금의 동아리 모임

정도였다. 韓明熙(서울시립대 교수)동문은 학생회장으로서 꼭 가야했고, 그 외의 남자라고는 필자와 柳幸雄(효성대학 교수), 鄭寬根(前 중앙여고 교사)동문 그리고 모교의 전속 카메라 아저씨 뿐이었다. 그러나 그 때 우리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들떠 있었다.

남학생 4명과 여학생 12명이 함께 간 수학여행, 당시 여학생의 인솔자 겸 보디가드(?)를 자처하며 다녔는데 이 또한 음대 남학생만이 누릴 수 있었던 복이었다. 그러나 서러움 또한 있었으니 행사 때마다 의자나 보면대를 옮기고 설치하는 일은 무조건 남학생들의 몫이었다. 복을 누리는데 따른 대가라고나 할까.



뒷줄 좌로부터 첫 번째 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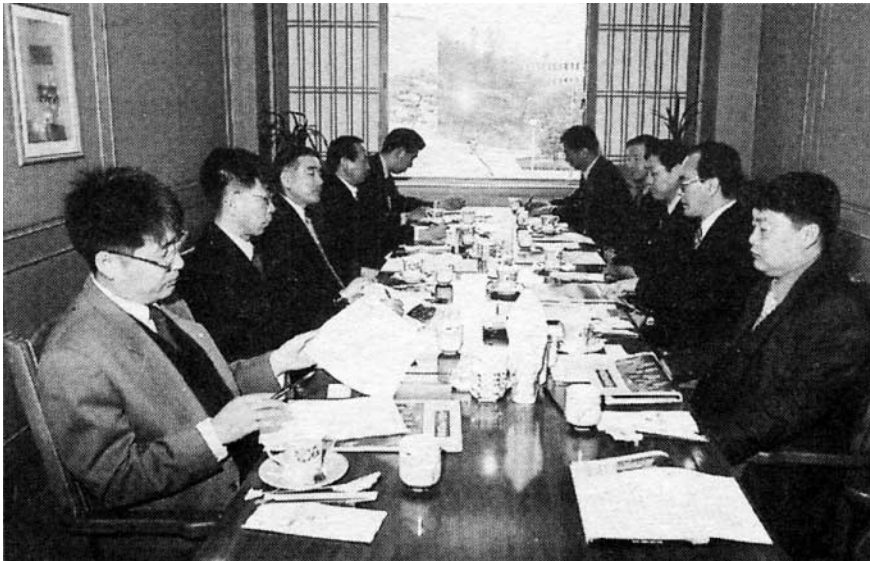
벤처 창업 자문·평가·지원은 우리 손에

최고산업전략과정 20기 「벤처 아카데미」로 뭉쳤다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AIP) 20기들이 주축이 되어 모교에 「벤처아카데미」를 설립, 활약하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벤처아카데미」에서 열성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金熙東(한국 공장자동화연구조합 사무국장·벤처아카데미 회장), 具教根(국제특허법률사무소 실장), 金棟焄(제일네트워크 사장), 金學洙(햇발전자 사장), 朴良信(세무회계사사무소 대표), 李東勳(터보테크 상무), 鄭在龍(동원전자 사장), 崔在東(Qcomber 사장), 韓鳳燮(한주산업 사장)동문을 만나 그동안의 활동 사항과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조언 등을 들어보았다.

사회=본보 李世震편집주간



사 회 : AIP 20기를 주축으로 「벤처아카데미」회를 만들어 공통의 관심사와 정보를 교류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지원하는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시대적 추세와 역사적 대세를 발빠르게 인식, 관련분야를 주도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벤처아카데미」가 무엇을 의미하며, 설립 배경과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해주시지요.

金熙東 : 작년 3월 AIP 20기 수료식 후에 졸업생 48명 중 43명의 동기생들이 의기투합하여 「벤처아카데미」를 발족했습니다. 발족 당시부터 호응도가 매우 좋았지요. 벤처아카데미의 설립은 벤처에 대한 당시의 시대적 요구상황이 매우 컸으며, 우리도 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벤처에 관련된 강좌를 매월 한번씩 갖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것이 벤처아카데미의 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후 AIP 20기 동기생과 AIP 졸업생들이 설립한 벤처기업 중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 사업설명회를 함께 추진해보자는 취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약 10여건 이상의 벤처와 관련된 강의를 진행해왔으며, 그와 더불어 간헐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져왔습니다. 초기에는 金學洙동문이 대표로 있는 햇발전자를 시작으로 제일네트워크, 동원전자, 세양통신, 휠캠 등의 기업체가 순차적으로 사업설명

회를 가져왔으며, 한편 실질적으로 인터넷 공모까지 진행한 기업체는 동원전자, 세양통신, 휠캠, 제일네트워크 등으로 현재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 회 :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은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 임원 및 경영 관련 기관 종사자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벤처기업을 이끌어 오시는 Owner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벤처아카데미의 실제 사례가 된 자신의 기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金棟焄 : 제일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저는 현재 2차 펀딩까지 받은 상태이며, 동기생들과의 벤처아카데미 활동을 통해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동기생들간의 믿음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바탕 안에서 저에게 펀딩을 해줬던 것이 가장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투자자금의

크기를 떠나서 저를 믿고 투자를 해줬다는 것이 제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기폭제가 됐습니다.

鄭在龍 : 초기 벤처 회사를 등록시키거나 사외에서 펀드를 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으나 벤처아카데미에서 추천을 해주고 도와준 결과, 성공적으로 인터넷 공모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로 작년 연말에 추진하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따른 설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2차적으로 3월중에 기관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몇 군데 상담을 받고 있는데 그 역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벤처아카데미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력으로만 어렵게 회사를 키우는 생각만을 했을 것입니다. 특히 동원전자는 당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나 벤처아카데미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로 인해 몇 배 더 빠른 성장을 했다고 자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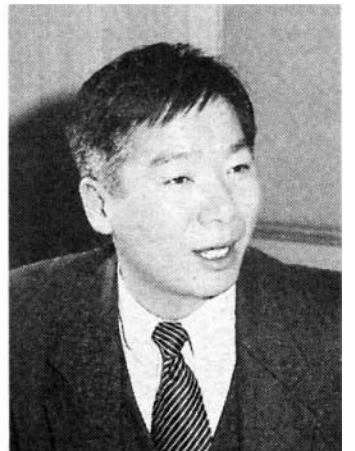
金熙東



具教根



金棟焄



金學洙

金學洙 : 저는 벤처아카데미에 가입은 했지만 지금까지 사업설명회만 가졌습니다. 최근에 주위 분들 3명이 1인당 1억원씩을 투자하여 아이템 개발을 추진중이며, 올 6월경 시판될 예정입니다.

韓鳳燮 : 저는 한주산업이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반도체 생산 장비를 국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옛말에 「세 사람이 뜻을 같이 한다면 성공한다」는 말이 있지요. 이는 한 사람이 일을 추진하려 할 때, 나머지 두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로간의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고 힘과 뜻을 함께 보태기 때문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벤처아카데미가 일반 벤처투자 혹은 엔젤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투자자들은 대다수가 돈을 보고 추진하지만, 벤처아카데미에 소속된 분들은 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기들의 기업이 발전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사 회 : 벤처아카데미가 다른 벤처 모임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金棟焄 : 벤처아카데미의 회원은 다른 벤처 모임보다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벤처아카데미 회원들은 건설업부터 제조업, 전자·통신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고, 특히 공대 출신 Owner가 다소 접근하기 어려웠던 회계, 세무, 경영, 특허관련 부분 등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의

좋은 자문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벤처 모임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李東勳 : 최근 벤처의 꽃은 코스닥에 상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벤처를 성장시켜 가는 과정에서 시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성공적인 벤처기업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벤처를 창업하는 경우,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상황들을 먼저 고려해야 하며, 창업 허가에 대한 규제나 규정 등에 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적절히 융합해주며, start의 발원을 용이하게 하는 벤처아카데미를 이용한다면 보다 알차게 벤처를 창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韓鳳燮 : 벤처아카데미가 처음에는 평범하게 출발했지만 앞으로 그 빛이 더욱 빛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벤처아카데미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모두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소위 토털 서비스나 원포인트 서비스 등 보다 더욱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 회 : 벤처아카데미에 참여함으로써 새롭게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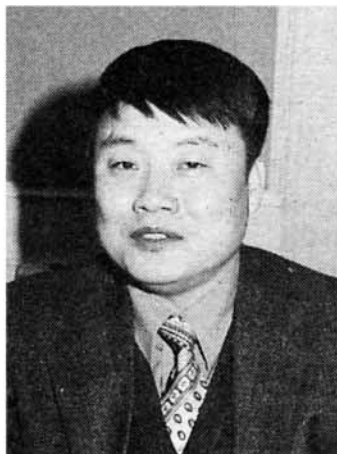
朴良信 : 저는 직접 경영을 하지는 않지만 세무회계사사무소



朴 良 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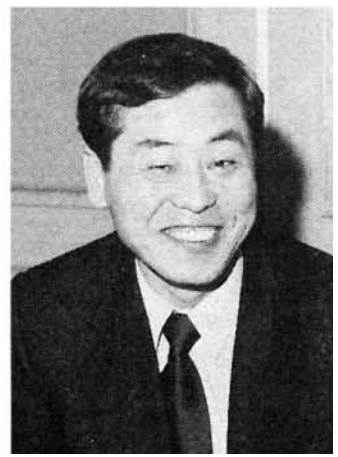
李 東 勳



鄭 在 龍



崔 在 東



韓 鳳 燮

대표로 기업 경영을 어시스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아카데미에 참여하고 나서 변화된 제 생활에 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전에는 기업을 대할 때 일반 고객으로만 생각했으며, 벤처는 단지 기술로만 승부하는 기업이라는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벤처아카데미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인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즉 벤처아카데미에 몸담고 또한 경험을 하면서 기업을 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金學洙: 기업의 대표라면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기업의 기본 원리를 지키고, 제삼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지요.

具教根: 벤처아카데미를 결성하고 꾸준히 활동해오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의 회사를 놓고 평가할 때, 동기들 모두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면 앞으로 동문들의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 회: 국내 벤처기업의 문제점과 엔젤과 벤처투자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金熙東: 예를 들면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한 벤처기업이 코스닥 등록후 3년 정도가 지나 자본금이 몇 배로 성장하게 되면 이전의 특화된 기술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리고, 늘어난 자본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발을 옮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

韓鳳燮: 요즘 벤처기업들은 좋은 투자자들을 만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부딪힐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아야 진정한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기업으로부터 되돌려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기업은 좋은 상품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具教根: 저는 국제특허법률사

무소 실장으로 특허에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허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개인의 좋은 발명이나 아이디어가 대부분 사장되는 경우를 보게 되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분위기를 본다면 개인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기술화하고 싶어도 주변의 도움이 없어서 그 아이디어가 사장돼버리는 예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개인의 아이디어를 적정한 가격에 사려고 하지 않고, 공짜로 얻을 생각을

아이디어는 벤처의 필요한 요소이지만 사업화라는 충분한 조건이 없는 안되며, 이러한 필요충분조건을 다 갖추어야 하는 것이 벤처의 첫걸음입니다. 벤처가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은 통계적으로 본다면 3~5%에 불과합니다. 벤처기업을 차리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의무도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즉 벤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립해서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업에 일임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벤처아카데미도 초기에 기업을 평가하는데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고심을 많이 했으며,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하는데, 벤처아카데미 구성원 대부분이 공학도 출신이기 때문에 회계 등 몇몇 부분은 다소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현재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朴良信동문에게 자문을 많

니다. 벤처아카데미는 이러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꾸준히 발굴해서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30여개 이상의 기업이 벤처아카데미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하게 된다면 벤처아카데미는 향후 약 30억원의 펀딩이 가능하리라고 예상합니다. 30억원 정도의 자금이 벤처아카데미에서 만들어진다면 이를 통해 모교의 좋은 아이템이나 뉴테크놀로지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창업을 추진중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金學洙: 이곳에서 중요한 경영 진리를 배운 만큼 앞으로 벤처아카데미가 활성화되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具教根: 벤처아카데미가 산교육의 장으로서 실무적인 교육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벤처아카데미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바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사 회: 벤처아카데미에서 추진하고 있는 엔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술개발 및 마케팅과 전략적 제휴 등 사업 성공화까지의 전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인 이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AIP 20기가 주축이 된 벤처아카데미는 동기라는 끈끈한 화연과 상호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있기에 어떤 투자를 하든지,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든지 동기내의 벤처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단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기에 오늘 모임이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돈을 위해서 투자하는 「엔젤」아니다

회계·특허 등 전문가 그룹 형성돼야

S.A.Angels 클럽 창립에 일조할 터

李東勳: 우리들이 인식해야 할 것은 서양의 벤처 개념과 동양의 벤처 개념은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양의 벤처는 휴먼 네트워크와 가장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벤처아카데미나 「S.A.Angels Club」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배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 회: 엔젤의 필요성과 벤처 투자의 중요성에 관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동문 관계로 묶여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벤처 인프라가 많이 있는 「벤처아카데미」, 동창회와 벤처창업보육센터에서 추진중인 「S.A.Angels Club」등은 그 성공 가능성을 더욱 증대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金熙東: 벤처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우선 벤처기업에 대해 올바르게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 형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계, 법률, 특허 등의 모든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

이 구하고 있습니다. 「S.A.Angels Club」도 위와 같은 조직을 갖추어, 토털 시스템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며, 또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속에서 움직여 가야할 것입니다.

사 회: 벤처아카데미의 앞으로 계획과 각자의 계획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金熙東: 현재 벤처아카데미의 도움을 받은 동원전자, 세양통신, 윗캠, 제일네트워크 등이 모금 금액의 1%를 벤처아카데미에 주식으로 기증했으며, 이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볼 때 약 5천만원 내지 1억원 정도가 됩

본보에서는 「만나 보고 싶었습니다」란을 통해 멋진 동기회나 화제가 되고 있는 모임들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모임이나 동문들에게 알리고 싶은 모임이 있다면 서울대총동창회 편집부로 지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 정

수 상

▲朴魯壽(52년 美大卒·예술원 회원)=지난 3월 1일 삼일 문화재단이 제정한 제41회 3·1문화상 예술상을 수상함.

▲金在權(53년 文理大入·美브라운대 교수)=지난 3월 2일 KBS 신관 공개홀에서 제8회 KBS 해외동포상(학술부문)을 수상함.

▲尹鍾赫(57년 文理大卒·한국공간시인협회장)=지난 2월 26일 대우주택문화관에서 제6회 호맥문학상 대상을 수상함.

▲鄭景薰(59년 文理大卒·한국과학기술원 교수)=지난 3월 1일 삼일문화재단이 제정한 제41회 3·1문화상 학술상(자연과학부문)을 수상함.

▲趙長熙(60년 工大卒·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지난 2월 18일 한림원 정기총회에서 제1회 한림원상(공학분야)을 수상함.

▲金聖浩(60년 文理大卒·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구조연구센터장)=지난 2월 18일 한림원 정기총회에서 제1회 한림원상(이학분야)을 수상함.

▲張潤宇(62년 美大卒·성신여대 교수·시인)=지난 2월 26일 대우주택문화관에서 제3회 서포(김만중)문

학상 대상을 수상함.
▲徐賢錫(61년 音大入·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최근 한국음악평론가협회가 주는 제16회 음악대상을 수

상함.
▲李基東(65년 文理大卒·동국대 교수)=지난 3월 1일 삼일문화재단이 제정한 제41회 3·1문화상 학술상(인문사회과학부문)을 수상함.

▲李世馥(65년 法大卒·나드리 화장품 대표)=지난 1월 18일 한국 패키지 디자인 학회가 주최한 '99 베스트 패키지 디자인 컴패션 대회'에서 색조화장품(베르당 클래식)으로 대상을 수상함.

▲李南雨(86년 社會大卒·삼성증권 상무)=지난 2월 10일 제2회 매경「올해의 증권인상」 시상식에서 애널리스트 분야 금상을 수상함.

▲崔炯俊(92년 自然大卒)=최근 미국 버클리대가 제정한「밀러 펠로(Miller Fellow)」수상자로 선정됨.

▲宋云漢(41기 AMP·코리아나 화장품 사장)=지난 2월 23일 제7회「전문직 여성클럽 한국연맹상」을 받음.

이동·선임

▲申勳澈(51년 工大卒)=지난 1월 19일 삼성그룹 퇴직임원 동우회인 星友會 회장에 재선임됨.

▲丁奇洙(51년 文理大卒·前공주대 교수)=지난 2월 10일 프랑스문화원에서「한국 AMOPA 협회」를 결

성, 초대 회장에 추대됨.
▲玄永源(54년 文理大卒·현대상선 회장)=지난 2월 29일 한국선주협회 정기총회에서 제22대 회장에 선임됨.

▲閔丙峻(56년 師大卒·한국광고주협회장·本會 副會長)=지난 2월 14일 한국방송위원회 위원에 임명됨.

▲申禹植(57년 文理大卒·前서울신문 사장)=최근 대한언론인회 회장에 선출됨.

▲盧平植(58년 文理大卒·송실대 교수)=지난 3월 1일 송실대 기획조정실장에 선임됨.

▲李淳福(58년 法大卒·경남대 명예교수)=지난 2월 8일 경남대 총장에 선임됨.

▲李仁浩(55년 文理大入·駐러시아 대사)=지난 2월 1일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에 내정됨.

▲申復泳(59년 商大卒·前서울은행장)=지난 2월 10일 금융관련 전산개발회사인 콤텍 시스템 회장에 선임됨.

▲韓完相(60년 文理大卒·상지대 총장)=지난 2월 9일 경실련통일협회 제3대 이사장에 취임함.

▲高宗鎭(60년 法大卒·두산대표이사 부회장)=지난 2월 9일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에 선임됨.

▲李相周(60년 師大卒·2001년 한국 방문의 해 추진위원장)=지난 2월 26일 한국 사회과학연구협의회 회장

에 선임됨.
▲曹慶鍾(60년 獸醫大卒·한국소비자연맹 부산회장)=최근 2000년 총선 부산시민연대(부산총선연대) 고

문에 추대됨.

▲柳奉煥(61년 工大卒·송실대 교수)=지난 3월 1일 송실대 총무처장에 선임됨.

▲金潤洙(61년 文理大卒·영남대 교수)=지난 2월 25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에 선임됨.

▲金世源(61년 法大卒·모교 교수)=지난 2월 11일 한국경제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0대 회장에 취임함.

▲愼平宰(61년 商大卒·교보증권 상임감사)=최근 헬싱키경제경영대학원 한국동창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됨.

▲白正範(62년 師大卒·명지전문대 학생지원처장)=최근 한국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됨.

▲沈利澤(63년 工大卒·대한항공 사장)=지난 2월 24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정기총회에서 제9대 회장에 선임됨.

▲黃一仁(63년 工大卒·일건건축 대표)=지난 2월 18일 한국건축가협회 정기총회에서 제22대 회장에 선출됨.

▲金容鎭(63년 文理大卒·前과기처 장관)=지난 2월 8일 리젠트종합금융 사외이사에 선임됨.

▲徐在萬(63년 文理大卒·한국외대 교수)=지난 2월 1일 한국외국어대 동양어대학장에 선임됨.

▲金聖男(63년 法大卒·변호사)=지난 2월 25일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됨.

▲任大和(63년 法大卒·대전지법원장)=지난 2월 2일 특허법원장에 임명됨.

▲林寅澤(63년 法大卒·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지난 2월 17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제5대 회장에 선출됨.

▲崔松和(63년 法大卒·모교 교수)=지난 2월 18일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촉됨.

▲鄭城鎭(63년 法大卒·국민대

교수)=지난 2월 29일 국민대 제7대 총장에 선임됨.

▲鄭玩鎬(63년 師大卒·한국교원대 교수)=지난 2월 19일 한국교원대 총장에 임명됨.

▲許永燮(64년 工大卒·녹십자 회장)=지난 2월 27일 韓獨協회 제8대 회장에 선임됨.

▲南仲九(64년 文理大卒·동아일보 안보통일연구소장·本報 論說委員)=지난 2월 22일 동아일보 21세기 평화재단설립 추진본부장에 선임됨.

▲金振晚(64년 法大卒·한빛은행장)=최근 국제금융협회(IIF)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선임됨.

▲鄭斗永(64년 師大卒·청주교대 교수)=지난 2월 15일 청주교대 총장에 임명됨.

▲卞光洙(65년 文理大卒·한국외대 교수)=지난 2월 1일 한국외국어대 서양어대학장에 선임됨.

▲崔尙德(65년 文理大卒·前외교통상부 의전장)=지난 2월 15일 주 오스트리아 대사에 임명됨.

▲金朝寧(65년 師大卒·청량교 교장)=지난 2월 25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에 임명됨.

▲吳昌圭(65년 商大卒·한국IBM 회장)=최근 정보통신 관련 컨설팅 아웃소싱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링크웨어 회장에 취임함.

▲裴洵勳(66년 工大卒·KAIST 교수)=지난 3월 2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엔젤클럽 초대 회장에 선임됨.

▲金容述(66년 文理大卒·前경향신문 편집국장)=지난 2월 15일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에 선임됨.

▲羅亨洙(66년 文理大卒·前

(9면에 계속)

단국대 張庸柱교수

아시아 鼻科學會 최우수 논문상 수상

단국대 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 張庸柱(87년 醫大卒)교수(사진)가 지난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 鼻科學會(ARSR) 회의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ARSR은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남아시아 각국의 이비인후과 전문가들 중 코의 질환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모임으로 張동문은 이번 학회에서「Genetic abnormality and localization of CFTR in pa-



tients with nasal polyps」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 논문은 매우 흔한 질환이지만 그 원인이 아직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비강질환인 비용종의 병인을 밝히는데 중요한 연구로 평가받았다. (變)

(8면에 이어)

KBS 해설위원장)=지난 2월 21일 한국방송위원회 사무총장에 선임됨.

▲**朴容丸**(66년 文理大卒·前중앙공무원 교육원장)=지난 2월 3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됨.

▲**張勳**(66년 法大卒·부산시국제관계자문대사)=지난 2월 15일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에 임명됨.

▲**趙健鎬**(66년 法大卒·前과학기술부 차관)=지난 2월 21일 한국무역협회 상근 부회장에 선임됨.

▲**金裕采**(67년 工大卒·자동차 부품 연구원장)=지난 2월 28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선임됨.

▲**金花中**(67년 看護大卒·모교보대원 교수)=지난 2월 25일 대한간호협회 제67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연임됨.
▲**朴正浩**(67년 文理大卒·前대통령 공보비서관)=지난 2월 10일 국무총리 공보수석비서관에 임명됨.

▲**李埰洛**(67년 文理大卒·경향신문 경영본부장)=지난 2월 29일 경향신문 상무이사 겸 영업본부장에 선임됨.

▲**李康國**(67년 法大卒·서울고법 부장판사)=지난 2월 2일 대전지법원장에 임명됨.

▲**林鍾律**(67년 法大卒·성균관대 교수)=지난 2월 27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됨.

▲**咸基善**(67년 保大院卒·한서대 교수)=지난 2월 24일 한서대 제5대 총장에 선임됨.

▲**朴信雄**(68년 文理大卒·외교통상부 기획심의관)=지난 2월 15일 주 오만 대사에 임명됨.

▲**金守東**(68년 法大卒·前특허청장)=최근 인하대 법과대학 교수로 임명돼 지식재산권, 특허법 등을 강의함.

▲**趙源一**(68년 法大卒·駐베트남 대사)=지난 2월 24일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에 임명됨.

▲**金信福**(68년 師大卒·모교 행정대학원장)=지난 2월 8일 국무총리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으로 위촉됨.
▲**李錫玄**(68년 醫大卒·고려대교수)=지난 2월 27일 대한스포츠의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8대 회장에 선출됨.

▲**鄭鎮圭**(69년 法大卒·법무연수원 기획부장)=지난 2월 1일 전주지검장에 임명됨.

▲**崔京甫**(69년 法大卒·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지난 2월 24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부장에 임명됨.

▲**尹德弘**(69년 師大卒·대구대학교 교수)=지난 2월 17일 대구대학교 제7대 총장에 취임함.

▲**金鍾玟**(69년 商大卒·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최근 무한기술투자 전문이사에 선임됨.

▲**吳海鎭**(69년 商大卒·LG-EDS 사장)=지난 2월 11일 한국CAD/CAM학회 회장에 선출됨.

▲**金順牡**(69년 獸醫大卒·한국야쿠르트 부사장)=지난 3월 2일 한국야쿠르트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金玄九**(70년 農大卒·성균관대 교수)=지난 2월 18일 감사원 행정심판위원에 위촉됨.

▲**李福永**(66년 法大入·동양화학 사장)=지난 2월 25일 정밀화학진흥회 제6대 회장에 선임됨.

▲**洪柱冠**(70년 法大卒·SK증권 부사장)=지난 2월 8일 리젠트종합금융(舊경수종합금) 사장에 선임됨.

▲**李錫瑛**(70년 商大卒·무역위원회 상임위원)=지난 2월 10일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에 임명됨.

▲**鄭在植**(71년 法大卒·前외교통상부 제1기획심의관)=지난 2월 15일 주 짐바브웨 대사에 임명됨.

▲**陳棟洙**(71년 法大卒·대통령금융비서관)=지난 2월 25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내정됨.

▲**金鍾昶**(71년 商大卒·금감위 상임위원)=지난 2월 25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임명됨.

▲**金熙重**(71년 商大卒·前경향신문 편집국장)=지난 2월 29일 경향신문 상무이사 겸 경영전략본부장에 선임됨.

▲**郭贊浩**(71년 新大院卒·민주평통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지난 1월 20일 대한언론인회 복지기금관리

위원에 재선임됨.

편집주간석

티끌 모아 泰山

— 뜻있는 동문들의 협조로 「총동창회 국민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장학 기부금이 올해 7천3백여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금년 1학기 장학생 45명이 등록금 전액의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티끌 모으면 티끌이 아니라 泰山이 되더군요. 동문 여러분의 신용카드를 다기능·다목적 카드의 새로운 총동창회 국민카드로 바꿔 사용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延元泳**(71년 商大卒·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지난 2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됨.

▲**高鉉旭**(72년 商大卒·경남대학교 교수)=최근 경남대 대학원장에 취임함.

▲**朴奉欽**(72년 商大卒·국회예결위 수석전문위원)=지난 2월 10일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에 임명함.

▲**李俊求**(72년 商大卒·모교교수)=최근 모교 사회대 교무담당 부학장에 선임됨.



▲**姜大仁**(72년 新大院卒·계명대 교수)=지난 2월 14일 한국방송위원회 위원에 임명됨.

▲**琴秉穆**(73년 文理大卒·前주체코 공사참사관)=지난 2월 15일 주 칭다오(靑島) 총영사에 임명됨.

▲**金東源**(73년 商大卒)=최근 산업자원부 에너지 산업심의관(이사관)으로 승진함.

▲**金在鉉**(73년 商大卒·산업자원부 생활산업국장)=지난 2월 10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됨.

▲**南榮祐**(73년 商大卒·LG정보통신 전무)=최근 데이콤 경영기획부문장 부사장에 선임됨.

▲**嚴基永**(74년 文理大卒·MBC 보도국장)=지난 3월 2일 MBC 보도본부장에 선임됨.



▲**姜應善**(74년 商大卒·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지난 2월 8일 국무총리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됨.

▲**金容珉**(74년 商大卒·대통령비서실)=최근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심의관으로 전보됨.

▲**表完洙**(75년 文理大卒·인천방송 보도국장)=지난 2월 1일 인천방송(iTV) 제3대 사장에 선임됨.

▲**鄭慶源**(75년 美大卒·한국과학기술원 교수)=지난 2월 25일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제9대 원장에 선임됨.

▲**裴哲浩**(75년 商大卒·재정경제부)=최근 기획예산처 공보관에 임명됨.



▲**全周範**(75년 商大卒·前대우전자 사장)=지난 3월 1일 모교 공대 기술정책대학원 초빙교수로 선임됨.

(10면에 계속)

(9면에 이어)

▲金星煥(76년 社會大卒·前인도네시아 대사관)=최근 외교통상부 북미국 심의관에 선임됨.

▲成克濟(76년 社會大卒·경희대 교수)=최근 외교통상부 사상 처음인 민간계약직 통상교섭본부 통상법률팀장에 선임됨.

▲安世英(77년 社會大卒·산업자원부 국장)=지난 2월 8일 서강대 국제통상대학원 교수에 임명됨.

▲朴明圭(78년 社會大卒·모교 교수)=최근 모교 사회대 학생담당 부학장에 선임됨.



▲姜榮哲(78년 經營大卒·데이콤 전략기획본부장)=최근 데이콤 대외협력실장(이사)에 선임됨.

▲金禹奭(78년 行大院卒·서울시 환경관리실장)=지난 2월 14일 서울시 기획예산실장에 임명됨.

▲金亨燮(79년 齒大卒·전북대 교수)=지난 2월 9일 전북대 치과대학 학장에 취임함.



▲金光琳(80년 行大院卒·前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지난 2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임명됨.

▲李炳濟(81년 社會大卒·LG화재 지점장)=최근 한성생명 상임 감사에 선임됨.

▲劉承旼(82년 社會大卒·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지난 2월 8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에 선임됨.

▲高光坤(82년 醫大卒·가천의대 교수)=최근 저명한 의학전문지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의 외부 논문 심사위원에 위촉됨.



▲文善睦(85년 社會大卒·산업자원부 서기관)=지난 2월 8일 인터넷광고업체인 온앤오프 상무에 선임됨.

▲鄭俊浩(86년 社會大卒·금융감독위원회)=최근 한국통신펙크와치평가(주) 대표이사에 취임함.

▲尹碩敏(87년 工大卒·(주)태영 상무)=지난 2월 29일 (주)SBS인터넷 대표이사에 선임됨.

▲金澈運(33기 AMP·한국물가협회 상임고문)=지난 2월 22일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회장에 선임됨.

▲李太旭(33기 AMP·코리아세일즈아카데미 이사장)=지난 2월 18일 해태제과(주)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陳在舜(36기 AMP·前대우건설 사장)=지난 2월 15일 한일

건설 회장에 선임됨.

▲梁鍾太(41기 AMP·前신용관리기금 전무)=지난 2월 10일 은행연합회 감사에 선임됨.

▲金光皓(46기 AMP·포스테이타 사장)=지난 2월 17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에 추대됨.

▲崔烈坤(6기 ACAD·한국미래교육연구회 회장)=최근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韓佛總) 수석부 회장에 선임됨.



▲李址斗(34기 ACAD·前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차장)=지난 2월 15일 주 호놀룰루 총영사에 임명됨.

▲李清男(37기 ACAD·예비역 육군소장)=지난 2월 1일 군인공제회 제7대 이사장에 취임함.

▲卓秉伍(38기 ACAD·서울시 기획예산실장)=지난 2월 13일 서울시 정부부시장에 임명됨.

▲朴尙東(2기 EPHPM·동서한방병원장)=최근 제14대 대한한방병원협회 정총에서 제8대 회장에 선출됨.



행사·출간

▲金相廈(49년 文理大卒·대한상공회의소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2월 15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전자상거래 도입 방안과 구축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李應百(49년 師大卒·모교 명예교수·重峰趙 憲선생 기념사업회장)=지난 2월 17일 학자이자 의병장인 趙 憲선생을 기리는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를 가짐.



▲邊衡尹(51년 商大卒·모교 명예교수·서울사회경제연구소장)=지난 2월 18일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21세기 한국의 사회경제전망」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짐.



▲金在淳(52년 商大卒·샘터사 이사장·本會 會長)=지난 2월 23일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島山 아카데미연구원 조찬세미나에서 「새 천년을 맞은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강연함.



▲朴晟容(50년 文理大入·금호그룹 명예회장·韓中우호협회장)

=지난 2월 18일 롯데호텔에서 韓中우호협회 정기 이사회 및 총회를 가짐.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지난 2월 25일 하얏트호텔에서 安正男(36기 ACAD)국세청장을 초청, 제82회 정책토론회를 가짐.



▲金俊鎬(55년 師大卒·모교 명예교수·학술원 회원)=지난 2월 19일 롯데월드에서 자서전 「한 삶을 학문과 더불어」와 자연 칼럼 「한 삶을 자연과 더불어」의 출판기념회를 가짐.



▲李大淳(57년 法大卒·경원대 총장)=지난 2월 15일 조선호텔에서 미국 미시간 주립대와 공동으로 2000년대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를 가짐.



▲李炳漸(58년 法大卒·한국사료협회장)=지난 2월 22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원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함.



▲鄭宗澤(58년 法大卒·충청대학 학장·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 회장)=지난 2월 25일 동서대 학에서 전국 전문대학의 특성화 사례발표회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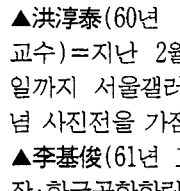
▲李升煥(59년 法大卒·한국가스연맹 사무총장)=지난 2월 16일 대구에서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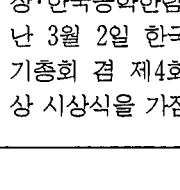
▲黃秉冀(59년 法大卒·이화여대 교수)=지난 2월 18일 단국대에서 명예음악학 박사 학위를 받음.



▲黃海根(60년 工大卒·한국건설감리협회장)=지난 2월 2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에서 정기총회 및 협회상 시상식을 가짐.



▲洪淳泰(60년 商大卒·신구대 교수)=지난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갤러리에서 정년기념 사진전을 가짐.



▲禹保命(61년 農大卒·모교 교수·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 회장)=지난 2월 8일 단국대 농대 국제회의장에서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가짐.



▲金學俊(65년 文理大卒·인천대 총장·한국정치학회 회장)=지난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외교안보연구원에서 「21세기 한국 정치학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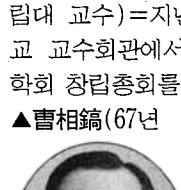
▲安秉永(65년 行大院卒·연세대 교수·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회장)=지난 2월 26일 연세대 알렌관에서 「21세기 한국 사회-한국 사회과학의 설계」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짐.



▲金明子(66년 文理大卒·환경부 장관)=지난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2차 동북아 3개국 환경장관회의」에 참석, 동북아 환경보전 및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주룽지(朱鎔基)국무원 총리를 예방함.



▲康泓彬(67년 工大卒·서울시립대 교수)=지난 3월 11일 모교 교수회관에서 한국도시설계학회 창립총회를 개최함.



▲曹相鎬(67년 行大院卒·국민생활체육협회의 상임고문·창조장학회 이사장)=지난 2월 26일 서울 강북대 성학원 소강당에서 2000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가짐.



▲宋珍佑(64년 文理大入·美오클라호마대 석좌교수)=최근 하이트크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오클라호마주로부터 2월 17일을 「송진주 교수의 날」로 지정받음.



▲姜玟昌(70년 新大院卒·육군예비사관학교 동창회장)=지난 2월 11일 국방회관에서 6·25전쟁 제50주년을 기념하는 「豫友文集」출판기념회를 가짐.



▲朴明潤(76년 保大院卒·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한국파인트리클럽 총재)=지난 1월 28일 리츠칼튼호텔에

서 클럽 창립 42주년 기념식 및 신년교례회를 가짐.

▲李珉柱(80년 美大卒)=지난 2월 18일부터 3월 6일까지 강남구 청담동 최갤러리에서 「無爲自然+ 장식」이란 주제로 제14회 개인전을 가짐.



▲閔庚元(88년 音大卒·송민문화예술단 멤버·바리톤)=지난 2월 24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에서 귀국 독창회를 가짐.

▲丁時采(9기 ACAD·초당대 총장)=지난 2월 11일 육군 보병학교와 학술교류 및 위탁 교육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매결연을 체결함.

(정리=安興燮 기자)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 김재용 군(91년 工大卒)(사진·최선희 양=3월 18일 14시.



* 최관병 군(93년 社會大卒)·이승미 양=3월 25일 12시 30분.

* 김종길 군(97년 環大院卒)·이은주 양=3월 26일 11시.

* 이현민 군(94년 師大卒)·신성경 양=3월 26일 12시 30분.

* 이명현 군(91년 經營大卒)·성나영 양=4월 1일 14시.

* 강대중 군·윤소희 양(97년 社會大卒)=4월 1일 15시 30분.

* 위종진 군(95년 師大卒)·윤화순 양=4월 2일 12시 30분.

* 박훈철 군(92년 農生大卒)·이연아 양=4월 2일 14시.

* 이정민 군(91년 師大卒)·류나영 양=4월 5일 12시 30분.

* 김범상 군(91년 工大卒)·노숙안 양=4월 8일 12시 30분.

* 박성희 군(95년 師大卒)·김현아 양=4월 8일 15시 30분.

* 정관서 군(85년 齒大卒)·윤선미 양=4월 9일 12시 30분.

* 김용국 군(96년 農生大卒)·성영민 양=4월 13일 14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金正鈺원장



「새로운 예술의 해」姜碩熙추진위원장

「사랑의 티켓」으로 극단 지원 넓힐 터

지난 1월 24일 임기 3년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에 임명된 金正鈺(56년 文理大卒)동문을 만나 국내 문화예술의 발전 방안 등을 들어보았다.

—30년 이상 극단 「자유」에서 예술감독으로 활동해오다 행정가로 변모한 요즘 생활은.

『한국영화학회 회장,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중앙대 예술대학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예술원 회원, 국제극예술협회(ITI) 세계본부 회장 등을 맡고 있으니 행정에 어둡지는 않아요. 하지만 임기가 끝나면 무대로 돌아가 연극연출 및 작품활동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요즘은 미술전람회, 연극공연 등 현장도 돌아보느라 일정이 빠듯하군요』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새천년을 맞은 국내의 문화예술계를 진단한다면.

『자아를 상실한 현대인, 획일화된 교육 등 모든 것이 비문화적인 것이겠지요. 문화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가치기준도 달라져 각 분야에 많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문화 수용자 확대가 시급합니다. 문화는 예술가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일반 문화예술 향유계층 즉 소비자층이 일본, 프랑스 등에 비해 매우 취약해요. 그만큼 예술가 탄생의 기반도 미비하게 되니까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방안과 계획이 있다면.

『우선 일반 문화애호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그 층을 두텁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술계 전체를 좀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균형감각」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도가 필수지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랑의 티켓」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들이 1만2천원에 해당하는 연극을 보려면 5천원이 할인된 사랑의 티켓을



7천원에 구입해 관람할 수 있고, 극단측은 이 티켓을 모아 제출하면 그 매수에 해당하는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 아동을 포함한 연극, 음악, 무용 등 공연예술 대부분이 해당되며, 현재는 서울만 가능하나 6월쯤 울산에서 열릴 전국연극제를 계기로 지자체와 협조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인 방법으로는 기부운동 등을 통해 현재 3천2백억원 수준인 문예기금을 2004년까지 4천5백억원 규모로 증액하는 것이 1차목표입니다. 실무인력의 전문성을 키우는 한편 정보데이터작업 등을 통해 인터넷 세대를 겨냥, 사이버 공간에서 순수문화예술정보를 얻고 표도 구입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모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 파리 4대학(소르본느)에서 공부한 金원장은 「대머리 여가수」같은 현대 부조리 연극을 국내에 알리려 소개했으며, 80년대 이후 한국적 표현양식을 찾아나선 작업 「무엇이 될꼬 하니」 「바람부는 날에도 꽃은 피고」 「따라지의 향연」 등 수많은 작품의 연출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 <變>

88올림픽 성화음악 컴퓨터로 작곡해

문화관광부에서 올해를 「새로운 예술의 해」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 9일 문학·연극·무용·음악·미술·영상 등 각 부문별 위원 30명을 위촉하고, 19명의 추진위원을 선출했다. 이날 호선에 의해 추진위원장에 선임된 姜碩熙(60년 音大卒·前모교 교수)동문을 만나 향후 계획을 들어보았다.

—「새로운 예술의 해」추진 배경은.

『문화관광부에서 새 천년을 여는 첫 해를 맞이해 우리 문화예술의 새로운 흐름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로 기획했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예술과 서구에서 유입, 발전돼온 문화예술을 더하여 기술, 인간, 환경 등 새로 부각되고 있는 21세기적인 가치와 발전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갈 우리 문화예술의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사업 프로그램은.

『문학부문에서는 「하이퍼 텍스트 문학의 날」 「청소년 문학과 인터넷 공모」 「전국 시낭송 대회」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극부문에서는 2시간 내외의 창작 공연물 6편 정도를 공모를 통해 선발, 「실험무대」라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무용부문에서는 국내 비디오 댄스 저변 확대를 위해 비디오 작가와 무용인의 연대 작업을 주선해 국내외 공연장에서 발표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음악부문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음악 공연으로 음악의 여러 장르, 즉 라이브 컴퓨터음악, 전통적 클래식 음악, 타악기의 음악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기술과 결합된 미래지향적 형태의 음악을 공연합니다. 미술부문에서는 「대안 미술 전시-페스티벌」을 오는 9월부터 3개월간 개최할 예정이며, 영상부문에서는 인터넷 공모를 통해 6mm디지털 장비를 이용한 영상물을 접수받아 디지털 영화제를 펼칠 생각입니다』

—그동안 기억에 남는 일과 가장 애



착이 가는 작품은.

『돌이켜보면 지난 88년 서울올림픽에서 올림픽 사상 최초로 컴퓨터로 성화음악을 작곡하고, 폐회식 음악감독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 90년에 들어와 내놓은 작품인 칸타타 「햇빛 쏟아지는 지구의 평화」, 오페라 「초월」, 프랑스 메시아홀에서 백건우씨에 의해 세계 최초로 연주된 「피아노협주곡」 등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만든 작품이지요』

—정년퇴임후 앞으로 계획은.

『개인적으로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모교를 떠나게 되어 무척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후배를 위해 자리를 내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월부터 대구 계명대 특임교수로 부임해 제자 양성에 더욱 힘쓰고 작품 활동에도 진력할 각오입니다』

한국현대음악계의 「대부」로 불리우는 聲海 姜碩熙위원장은 지난 98년 「97 세계음악제」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보관문화훈장을 받았으며, 99년 뉴욕대에서 국제현대음악협회 작곡상, 지난 1월 제7회 우경문화예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變>



문화재가 받고 있는

황당한 대접

池永善(72년 文理大卒)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지난 주 아버지와 큰 언니 내외를 모시고 수안보 온천에 갔었다. 지난 연초 어머니 상을 치르고 난 끝이라 혼자 되신 아버지를 위로해 드리자는 생각에서였으나, 나 자신이 새삼 가족의 정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 주말을 피해 내려가니 무엇보다 길이 붐비지 않아 좋았다. 도중에 들른 사적지에도 인적이 드물어 역사 속 시간여행의 기분을 맛볼 수 있었다.

아무도 없는 미륵리 절터는 전에 갔을 때와 또 다르게, 특히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의태자가 망국의 한을 품고 금강산으로 가던 길에 이곳에 머물러 석굴을 짓고 불상을 세웠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다. 그러나 국방의 요지인 이곳의 위치나 만만치 않은 절의 규모로 보아, 고려 초기에 전략적 목적을 겸해 지어졌다는 설이 더 설득력을 얻는 모양이다.

이곳 미륵리 절은 천년 역사 저편의 옛 절로서 키가 10m가 넘는 미륵불과 그 둘레로 불상의 허리 높이까지 올라 쌓은 독특한 인공 석굴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비하고 소중하다. 석굴 위로 목조지붕을 덮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물론 지금은 타버리고 없다. 천년 전 옛 지형 그대로일 듯 싶은, 작은 개울을

도대체 보물96호(석불), 95호(석탑)가 서있는 그 소박하고 애잔한 미륵리 절터 옆에 그토록 요란한 절을 새로 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더구나 미륵대원사라는 옛 절의 이름을 달고서.

옆에 낀 약간 경사진 절 마당에는 석등과 5층탑이 섰다. 마당 주변에는 절집과 병영으로 짐작되는 여러 동의 건물 흔적이 주춧돌로 남았다. 이만큼 아래쪽에는 큼직한 자연석을 대강 다듬어 만든 아주 잘 생긴 돌거북도 었드려 있다.

오래 잊혀졌던 이 절은 50년대에 한 보살이 얹힌 다래덤불 속에서 미륵불상을 찾아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알려졌다고 한다. 그 후 70년대 말이 돼서야 발굴조사가 이뤄져 미륵대원사라는 절이름이며, 건립연대 등 숨었던 역사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아아 흐르는 시간의 무상함 이여!

그런데 미륵대원사 옛 절터에서, 스러진 역사와 선인들의 숨씨에 감탄하며 마냥 아름다운 감상에 젖을 수는 없었다. 주차장 관리인의 소개로 절터를 지나쳐 산길을 올라가니 과연 절이 나왔는데 절 마당에는 집채만한 돌덩이들을 다듬어 만든 수십마리의 돌용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미 화려하게 단청한 대웅전이 있음에도 새로 지을 석조 대웅전의 돌기둥을 깔고 있었던 것이다.

입간판에 그려진 조감도를 보니 그 대웅전은 아마 국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거창하고 요란한 절집이 될 듯 싶었다.



도대체 보물96호(석불), 95호(석탑)가 서있는 그 소박하고 애잔한 미륵리 절터 옆에 그토록 요란한 절을 새로 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더구나 미륵대원사라는 옛 절의 이름을 달고서.

옛날 석공이 손으로 다듬은 소박한 석조물에 비해, 기계로 딱 주무르듯 깎아낸 석조물들이 전박스러워 보이는 것은 나만의 편협함일까. 그 거창한 2층 석조 대원사와 그 절에서 녹음기로 들어갈 요란한 염불소리에 옛 절에 서린 섬세한 아름다운 빛이 바래고 말 것이다. 마치 도시의 네온사인 뒤로 숨어버리는 달빛처럼. 우리들이 문화재를 제대로 관리할 줄 알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사유물들이 이런 황당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

별도 달도 없는

적막한 서울 하늘

曹恩慶(87년 社會大卒)도서출판 늘봄 대표·月刊「춤」편집장

언제부터였을까 나는 봄을 기다렸고, 그 봄은 항상 내게 행복과 새로운 꿈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아마도 학교가 곧 나의 성장과 연관된 세상이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정서일 것이다. 봄마다 학년이 높아지는 즐거움과 봄방학, 중·고등학교의 진학과 새로운 분위기, 대학 합격의 큰 성취감과 해방감, 모두가 봄이었다.

그리고 첫 아이가 새 옷, 새 신을 신고 초등학교에 갈 때가 봄이었고, 둘째가 머리에 꽃리본을 꽂고 유치원 언덕을 오르던 작년이 역시 봄이었으니까...

그때가 대학 입시 막바지 늦은 겨울밤이었다. 독서실에서 신문에 쓴 밤참도 시락을 펼치다가 「待春賦」라는 漢字로 쓴 詩제목이 눈에 띄었다. 특히 「賦」라는 글자의 그 낮섬과 존경스러움은 마치 로제타석을 발견한 것처럼 어른스럽고 아주 높은 경지의 고전적 코드로 느껴졌었다.

서울에는 봄다운 봄이 없어 쓸쓸하다는 내용의 그 詩. 나는 그때 분명 그런 슬픔의 감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때의 나는 입시에 한번 실패를 겪은 불안한 감정 속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날부터 나의 봄은 그 詩題처럼 격이 높고 소녀적인 슬픔으로 결정지어졌다. 내가 어른이 된 후에도 서울에는 봄다운 봄이 없다는 그 시의 발상에 영향받은 나는 서울에는 밤다운 밤도 없고 별도 달도 없는 적막한 하늘뿐이란 말을 서슴지 않게 됐다.

어쨌든 봄도 없고 별도 없는 서울 하늘 밑에서 크는 우리 아이들. 별이 쏟아지는 그런 찬란하고 장엄한 밤하늘을 한번도 쳐다보지 못하고 사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불행한가. 그래서 나는 봄을 찾아 먼 곳을 여행하는 소녀의 꿈을 꾸어본다. 누구의 여행기였던가. 밀밭이 한없이 펼쳐진 중앙아시아 넓은 평야를 며칠째 기차로 달리면서 밀꽃가루가 바람에 날려 하늘이 온통 노랗게 되어버린 그런 봄을 찾아 떠난다는...

내가 간직하고 있는 봄이란 그저 관악캠퍼스 뒷동산에 펼쳐진 짧은 봄뿐. 대학에 입학하고 꽃피는 봄까지 기다리던 그때의 꿈같이 행복했던 시간, 그 봄의 캠퍼스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던 소망, 지금도 그때의 심정을 잊을 수가 없다. 당시

「待春賦」라는 漢字로 쓴 詩제목이 눈에 띄었다. 특히 「賦」라는 글자의 그 낮섬과 존경스러움은 마치 로제타석을 발견한 것처럼 어른스럽고 아주 높은 경지의 고전적 코드로 느껴졌었다.



관악캠퍼스의 봄은 그 짧은 한 때를 빼고는 늘 시위와 집회로 소란했었다.

얼마전 미국에 살고 계신 학교 선배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 선배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틀림없이 편지를 보내주는 그런 분이다. 미국으로 가신 지 10년 넘도록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를 제외하곤 한번도 한국에 나온 일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 편지에는 이번 봄에 한국에 나와서 고향을 돌아보겠다고 쓰여있었다. 그 선배도 나이를 먹으니 봄이 되자 견딜 수 없는 향수병을 앓게 되었나? 그렇지 않고서야 그 감직한 선배가 이렇게 약한 말씀을 하시다니 측은한 생각도 든다.

이제 경칩, 춘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개나리 꽃망울 짓는 관악캠퍼스로 한번 찾아 가봐야겠다. 거기에는 그래도 나의 봄이 있을 테니까.

동문
화제의
Talk

서울국악관현악단 金性卿 상임지휘자

국악계 첫 여류 지휘자로 데뷔

KBS국악단 거문고 주자...작곡 능력도 뛰어나

『서양음악이 화성을 중시한다면 국악은 선율을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악관현악의 지휘는 정확한 박자보다 장단에 따른 호흡을 제대로 알고, 악기의 서로 다른 음색을 조화시키기 위한 섬세한 분석력이 요구됩니다.』

지난 99년 11월 22일 서울국악관현악단 제9회

정기연주회에서 국내 첫 여류 지휘자로 데뷔한 金性卿동문.

金동문은 81년 모교 음대 국악과를 졸업, KBS 국악관현악단이 창설되던 85년부터 거문고 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국악인이다.

金동문이 국악과에서 거문고를 전공하게 된 주요인은 바로 조부 때문.

거문고를 너무 좋아했던 金동문의 조부는 연주가 하고 싶어 뒤늦게 전업, 국립국악원의 악사로 들어가 활동하기도 했다.

조부의 거문고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이어 받은 金동문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였으며, 국립국악고교에 입학하면서 국악에 대한 자신의 「끼」를 발견해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국악에 눈멀어(?) 모교에 입학한 金동문은 대학 1학년에 접어들자 이번에는 이성간의 사랑에 눈을 떠(?) 金宇漢(79년 美大卒)동문을 만나 결혼했다.

金동문의 남편인 金宇漢동문은 모교 졸업 후, 잠실여고 교사로 있다가 당시 전교조 문제로 해직되는 고통을 겪었다. 9년여 동안 작품활동에만



전념해오다가 지난 98년 복직되어 현재 동호공고 미술교사로 재직중이다.

한편 작곡에도 관심이 있던 金동문은 늦깎이로 중앙대 대학원에 입학, 작곡 공부를 시작했다.

이때부터 지휘에 대한 꿈을 키운 金동문은 특히 국내에 여류 지휘자가 한 명도 없는 현실을 보면서 더욱 치열하게 노력했다.

그 결과 지휘봉 하나로 데뷔 무대를 휘어잡아 성공으로 이끈 金동문은 『최선을 다해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줬기에 아쉬움은 없었다』고 회고했다. 『다만 국악계의 첫 여류 지휘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만큼 다른 여류 음악인들이나 후배들에게 모범이 돼야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95년 동아음악콩쿠르 국악 작곡부문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한 金동문은 거문고 연주자, 작곡가, 지휘자, 대학 강사 등 호칭도 다양하다.

『연주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휘자로서 바로 설 수 있는 밑거름』이라고 강조하는 金동문은 자신처럼 지휘자의 꿈을 키우고 있는 후배들에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고 될수록 많은 음악을 접해, 작곡자가 의도하는 바를 제대로 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바란다』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누가 자신을 지휘자라고 칭할 때면 아직도 쑥스럽다고 겸손해하는 金동문은 현재 KBS국악관현악단 거문고 주자이자 서울국악관현악단 상임 지휘자로 활동중이다.

오는 3월 24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리는 서울국악관현악단 봄 정기연주회에서 더욱 깊어진 지휘자로서의 면모를 기대해보자.

〈信〉



④ SAP 코리아

국내 ERP시스템분야 독보적 위치 올라

2백70억 매출...기업간 업무관리 솔루션 「mySAP.com」 선보여

국내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SAP(Systems, Applications and Products in Data Processing) 코리아.

독일에 본사를 둔 「SAP 코리아」는 기업용 대형 소프트웨어인 ERP 전문업체로, 세계 1만1천여 업체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얻은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소프트웨어업계 4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우수성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ERP」는 기업내부의 회계관리(재무, 관리, 자금), 물류관리(구매/재고, 판매, 생산, 프로젝트, 품질, 설비보전), 인사관리, 오피스 커뮤니케이션 및 오피스 자동화 등 기업 전체의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ERP를 도입한 기업은 5% 남짓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앞으로 일상화될 전자상거래를 기업이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ERP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요소가 되리라는 전망이다. 기업과 소비자간의 원활한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생산계획 수립과 판매, 물류



崔海元 사장

상황 등을 즉시 파악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SAP 코리아」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崔海元동문.

74년 모교 농대를 졸업한 崔동문이 전혀 다른 분야인 컴퓨터 업계에 몸담게 된 것은 「CONTROL DATA」라는 컴퓨터 메모리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서부터. 이후 「한국IBM」에 근무하면서 본격적으로 컴퓨터 산업에 뛰어들었다.

특히 崔동문은 서울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 등 국가적인 행사때 대형 프로젝트 기획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두각을 나타냈고 SAP 코리아로 자리를 옮기면서 컴퓨터 업계의 떠오르는 인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난 95년 11월, 자본금 98억원으로 설립된 한국법인 SAP 코리아는 짧은 기간 동안 매출액 2백70여억원(99년)을 기록하면서 직원 1백40명을 거느린 중견기업으로 급성장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컨설팅, 정보기술 회사를 파트너로 갖고 있는 이곳은 국내 5대 재벌 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을 주고객으로 삼고 있다.

SAP 코리아는 전문인력, 제품, 프로세스가 결합된 TeamSAP를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선사하고자 끊임없이 노력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하게 마련된 지원,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 서비스로 SAP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없이 항상 최상의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지원 전략이자 솔루션으로 「mySAP.com」을 국내에 선보였다. 이것은 기업간 구매와 판매, 의사소통, 관계관리 및 업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처리하고 산업별 공동체를 지원하는 기업간 개방형 전자시장 공동체를 형성해준다. 임직원 개개인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모든 기능과 정보를 담고 사용자별로 구성된 웹브라우저 기반 통합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SAP가 선정한 인증 파트너 호스팅 업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기업경영 솔루션을 경제적으로 제공받고 능동적으로 가상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SAP 코리아는 mySAP.com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내 업무관리 솔루션으로 대표되는 ERP뿐만 아니라 가상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기업간 업무관리 솔루션의 대표주자로서 그 위상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信〉



독일 Walldorf에 위치한 SAP 본사.

亞南 특지장학금

10명에게 1천6백여만원 수여



아남그룹(회장 金柱津·54년 法大入·본회 부회장)은 지난 2월 24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아남그룹 金柱津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0학년도 제1학기 「亞南 특지장학금」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 모교 재학생 金竣暎(사회학과 1년), 閔楠泓

(토목공학 석사과정), 閔胡俊(경제학부 2년), 南秉祐(동양학과 2년), 韓銀俊(기계항공공학부 2년), 金官洙(약학과 3년), 任挑均(기계항공공학부 4년), 尹水仙花(제약학과 4년), 金湖(사회학과 4년), 金芝善(건축학과 4년) 등 10명에게 1천6백 77만6천5백원을 수여했다.

洪性大 특지장학금

7명에게 1천50만원 전달



학교법인 상산학원 洪性大(63년 文理大卒·본회 부회장)이사는 지난 2월 24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0학년도 제1학기 「洪性大 특지장학금」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홍이사장은 모교 재학생 崔세롬(법학과 4년), 安棟俊(경

제학부 4년), 鄭相鎬(응용생물학부 3년), 宋旻斗(의예과 3년), 宋燦雨(경제학부 2년), 鄭雲慶(의예과 2년), 林炳善(농경제학부 1년) 등 7명에게 각각 1백50만원씩 총 1천50만원을 전달했다.

李鍾基 특지장학금

영·호남 고교출신에게 지급



상영무역 李鍾基(73년 商大卒)사장은 지난 2월 24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0학년도 제1학기 「李鍾基 특지장학금」수여식을 가졌다.

李동문이 지난 99년 10월 영·호남지역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출연한 1억원을 본회에서

관리, 그동안 발생한 이자로 영남지역 고교출신 張智皓(경제학부 4년), 韓尙協(경영학과 3년) 군, 호남지역 고교출신 梁宰碩(경제학부 3년), 李洸鉉(경영학과 3년) 군 등 4명에게 등록금 전액 총 4백1만7천원을 전달했다.

李吉女 특지장학금

신입생 2명에게 등록금 전액



학교법인 가전학원 李吉女(57년 醫大卒·의대동창회장)이사

장은 지난 2월 24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0학년도 제1학기 「李吉女 특지장학금」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 모교 신입생 金施援(사회교육과 1년), 金始垠(동물자원학과 1년)양에게 등록금 전액 2백98만9천5백원을 지급했다.

金讚淑 특지장학금

치대 재학생 2명 혜택 받아



청아치과병원 金讚淑(60년 齒大卒)원장은 지난 2월 24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0학년도 제1학기 「金讚淑 특지장학금」수여식을 개최했다.

金원장은 이날 모교 치대 재학생 朴斗南(치위학과 1년), 權寧大(치위학과 4년) 군 등 2명에게 등록금 전액 총 4백40만9천원을 전했다.

鄭八道·李慈倖 특지장학금

2명에게 3백80여만원 지원



(주)흥인 鄭八道(1기 AIP·AIP동창회장)회장이 지난 2월 24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0학년도 제1학기 「鄭八道·

李慈倖 특지장학금」수여식을 가졌다.

鄭동문이 99년 4월, 지난 2월 10일 두차례에 걸쳐 각각 5천만원씩 출연한 1억원을 본회에서 관리, 그동안 발생한 이자로 모교 재학생 鄭成旭(치위학과 4년), 李一秀(산업공학과 석사과정) 군 등 2명에게 등록금 전액 총 3백84만원을 지급했다.

金秉順 특지장학금

법대·의대 신입생 2명 후원



(주)한국구아노 金秉順(4기 AMP·가정법률상담소 운영이사)이사는 지난 2월 24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0학년도 제1학기 「金秉順 특지장학금」수여식을 개최했다.

金동문이 지난 1월 19일 출연한 1억원을 본회에서 관리, 金동문이 특별히 지정한 법대 林湖珍(법학부 1년), 의대 范宰源(의학과 1년)군에게 등록금 전

액 총 2백39만7천원을 전달했다.

특지장학금

7백6만6천원

각 특지장학회는 지난 2월 24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0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주)일성 張世一(63년 工大卒·울산지부 동창회장)사장은 (주)일성 俞益善부사장이 대리하여 참석한 가운데 「張世一 특지장학금」으로 모교 신입생 張在貞(사복지학과 1년)양에게 1백19만8천5백원을 전달했으며, (주)수산스타 朴柱鐸(74년 商大卒·관악회 감사)대표이사가

설립한 「朴柱鐸 특지장학금」으로 모교 공대 토목공학과 박사과정인 趙在悅군에게 1백66만3천원을 지급했다.

또한 간호대동창회 楊銀淑(54년 看護大卒)회장은 李明善상임이사가 대리하여 참석한 가운데 「楊銀淑 특지장학금」으로 간호대 박사과정인 李東淑양에게 1백64만4천원을 지급했으며, 태성고무화학 鄭哲圭(52년 工大卒)회장이 99년 12월 5천만원을 출연해 설립된 「鄭哲圭 특지장학금」에서 朴正用(응용화학부 3년)군에게 1백52만9천원을 전달했다.

한편 동일기술공사 黃海根(60년 工大卒)사장이 설립한 「李金玉·黃海根 특지장학금」으로 崔宇辰(법학부 2년)군에게 1백3만1천5백원을 수여했다.



張世一 특지장학금



楊銀淑 특지장학금



鄭哲圭 특지장학금

기금장학금

6백16만5천5백원

각 기금장학회는 지난 2월 24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0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치과대학 불교학생회 출신 동문들로 구성된 齒佛會(회장 李貞燮)는 모교 柳寅哲(83년 齒大卒)교수가 대리하여 참석한 가운데 「齒佛會 기금장학금」으로 張遠翼(치위학과 2년)군에게 2백17만7천원을 지급했다.

본회 李世震(73년 法大卒)사무총장이 「李世震 기금장학금」에서 李相珉(법학부 2년)군에게 1백3만1천5백원을 전달했으며, 드림위즈 李燦振(89년 工大卒)사장이 「李道卿·李燦振 기금장학금」에서 金鍾浩(응용생물학부 4년)군에게 1백46만3천원을 지급했다.

또한 화학과동창회가 99년 12월 3천만원을 출연해 설립된 「화학과 동창회 기금장학금」에서 陸寶根(61년 文理大卒)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鄭震奎(화학과 4년)군에게 1백49만4천원을 수여했다. (變)

약학대학

우수 동문 및 졸업생에게 표창



약학대학동창회(회장 李禮植)는 지난 2월 19일 롯데월드호텔에서 黃善源 명예회장, 鄭鍊沁 부회장, 대한약사회 金熙中 회장, 모교 千文宇 학장 등 1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

申英浩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尹斗石 부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우수 졸업자로 선정된 蘇元熙(제약학과)·陳英蘭(약학과) 동문이 「동창회장賞」을 받았다.

또한 동문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헌신해온 小武徹郎 자문위원·安養燦·李民和·權博·李在元·尹昌燮 동문이 「총동창회장賞」을, 金榮男·長安秀 동문 등이 「약대 동창회장賞」을 각각 수상했다. 특히 사법고시에 합격한 張皓在·朴錦娘·吳娟受·朴順德 동문은 「축하패」를 받았다.

한편 사업계획 보고에 이어진 임원 개선에서 李禮植 회장이 유임됐으며, 신임 감사에 尹斗石·李甲烈·李薰子 동문이 선임됐다.

상과대학

우수 졸업자 시상·장학금 전달



상과대학동창회(회장 高炳佑)는 지난 2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60여명의 동문 및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도 최우수 졸업자 및 최우수 논문 시상식」과 「2000년 1학기 향상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최우수 졸업자」로 경영대학 朴範鎭 군과 경제학부 李炫泰 군이 선정됐으며, 경영대학 徐永賢 군의 「한국 선물시장에서

의 선물과 현물의 선후관계 분석」과 경제학부 徐基喆 군의 「합병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논문이 각각 「최우수 논문」에 선정됐다.

또한 金大鉉 군을 비롯한 경영대학 및 경제학부 재학생 30명에게 각각 1백만원씩 총 3천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한편 본회 李世震 사무총장이 참석해 향상장학회 기금확충 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전달했다.

행정대학원

金基炳·姜炳千 동문 감사패 받아



행정대학원동창회(회장 韓昇洙)는 지난 2월 18일 조선포탈 오키드룸에서 姜敏求 명예회장, 曹相鎭 前체육부장관, 하나로통신 申允植 사장 등 2백여명의 동

문 및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문승진 축하모임 겸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승진한 금감위 李容根 위원장, 申洵雨 산

림청장, 林東源 국가정보원장이 축하패를 받았으며 롯데관광 金基炳 회장과 (주)석천 姜炳千 사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한편 금감위 李容根 위원장은 「구조조정의 원리와 향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쳐 동문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자연과학대학

陸寶根 회장 선임



자연과학대학동창회(회장 尹沃榮)는 지난 2월 18일자로 신임 회장에 陸寶根(61년 文理大卒) 동문(사진)을 선임했다.

신임 陸 회장은 현재 대림섬유(주) 회장으로 화학과동창회장을 겸하고 있다.

영어영문학과

申禹植 회장 뽑아

영어영문학과동창회(회장 金鍾云)는 지난 2월 1일 리베라호텔 청담홀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申禹植(대한언론인회장) 동문을 선출하고 그동안 동창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온 전임 金 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한편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해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에게 매년 「자랑스런 동문상」을 수여하기로 함에 따라 이날 첫 수상자로 李相沃(모교 교수), 趙正濟(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韓光玉(대통령 비서실장·본회 부회장) 동문을 선정, 시상했다.

언어학과

李傑三 회장 선출



언어학과동창회(회장 金光植)는 지난 2월 24일 혜화동 소재 「몽크」에서 200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李傑三(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동문(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한 수석부회장에 趙長鎭(한라대 교수) 동문을 선임하고 감사에 劉植(변호사)·沈奉官(강남공인중개사 대표) 동문을 선출했다.

신임 李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21세기를 맞아 동창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더 나은 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상대83회

韓英國 회장 추대



상대83회(회장 嚴載乙)는 지난 2월 11일 롯데호텔 나세르부페에서 신년식 및 임시총회를 가졌다.

이날 嚴 회장의 작고로 인해 공석이었던 신임 회장에 韓英國(금토상사 회장) 동문(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韓 회장은 취임사에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면서 「동창회 발전과 동문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상대83회는 단기 4283년 모교 상과대학에 입학한 동문들의 모임이다.

사회교육과

曹道根 회장 재선임

사회교육과동창회(회장 曹道根)는 최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식을 열었다.

전년도 회무 및 감사보고에 이어 그동안 동창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韓基彦·金璣洙 전임 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한편 임원 개선을 통해 曹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임하고, 부회장에 李裕澤(세경 사장), 金鼎九(전국교육정보신문 대표) 동문을, 감사에 徐順鍾(공인회계사) 동문을 선출했다. 〈信〉

모임예정

의과대학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吉女)는 3월 16일 오후 6시 30분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762-9051)

어느 조각 모임

어느 조각 모임(총무 李東肅)은 오는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종로 관훈동 소재 「관훈미술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특별전을 가질 예정이다. (문의: 733-6469)

치대 14회

치대14동기회(회장 李大源)는 오는 3월 31일 오후 6시 웨라톤위커피홀호텔에서 졸업 40주년 기념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2602-1147)

재미 吳仁錫 회장·뉴욕 金榮德 회장 환영 만찬

본회는 지난 2월 11일 신라호텔 「팔선」 샤론룸에서 재미동창회 吳仁錫 회장과 뉴욕지부동창회 金榮德 회장 환영만찬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金在淳 회장, 鄭宗澤 상임부회장, 宋斗灝·閔丙峻 부회장, 孫一根 논설위원, 李

禮植 약대동창회장, 鄭八道 AIP 동창회장, 태성고무화학 鄭哲圭 회장, 李世震 사무총장, 모교 宋丙洛 부총장, 南相午 발전기금 상임이사, 張達重·姜光夏 교수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宋丙洛 부총장은 「앞으로 영어와 컴퓨터를 비롯해 국제매

너를 갖춘 학생들만 졸업이 가능토록 할 것」이며 「신입생 5천명중 2천5백명에게 영어를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吳仁錫 회장은 해외에서 자신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은퇴한 동문들 가운데 모교에서 무보수로 영어강의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해 앞으로 모교측과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좌로부터 鄭八道·南相午·李世震·閔丙峻·張達重·吳仁錫·金在淳·姜光夏·宋丙洛·鄭哲圭·鄭宗澤·孫一根·金榮德·宋斗灝·李禮植 동문

모교소식

총 6천6백25명 학위 받아

金대통령 “도전정신 지닌 창조적 지식인 되길”



모교(총장 李基俊)는 지난 2월 26일 제54회 학위수여식을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金大中대통령과 李姬鎬여사, 文龍麟교육부 장관, 본회 金在淳회장, 孫京植·洪性大부회장, 孫一根논설위원, 林光洙공대동창회장, 李吉女의대 동창회장, 태성고무화학 鄭哲圭 회장, 한국구아노 金秉順이사, 관악회 朴英俊감사, 李世震사무총장과 李基俊총장, 宋丙洛부총장, 禹鍾天대학원장, 보직교수, 학부모 등 2만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3천8백54명, 석사 2천2백30명, 박사 5백41명 등 총 6천6백25명이 학위를 받았다.

李基俊총장의 식사(20면 참조)에 이어 金大中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는 학벌이나 학력에 안주해서는 성공할 수 없는 세상』이라며 『도전정신을 지닌 창조적 지식인, 선진국의 젊은이들과 경쟁·협력하는 세계인, 이웃과 사

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인격의 소유자가 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어 음대 金麟惠교수가 「Climb Every Mountain」을 축가로 선보였다.

또한 각 단과대학별 수석과 차석 졸업생에 대한 총장상과 동창회장상 시상도 거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인문대: 김동환-오은하 △사회대: 구양미-김철효 △자연대: 박철환-신석우 △간호대: 김윤정-박신혜 △경영대: 박범진-이정호 △공대: 임창훈-박주홍 △농생대: 서승노-문준관 △미대: 주재형-심하용 △법대: 전우정-정은영 △사대: 심수민-전혜인 △생활대: 김지현-이지영 △수의대: 강선미-신성재 △약대: 홍영미-정채림 △음대: 조현리-김민주 △의대: 최혁진-강승주 △치대: 최형주-권희정

“신입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교 99학년도 전기 학위수여

식이 지난 2월 26일 거행돼 동창회는 6천6백25명(학사 3천8백54명, 석사 2천2백30명, 박사 5백41명)을 신입회원으로 맞이했다.

이로써 동창회 총회원 수는 25만8천5백84명(준회원, 단기과정 포함)으로 늘어났다. 각 단과대학(원)별 졸업자수 및 동창회 회원수는 별표와 같다.

단과대학(원)별 회원현황		
구 분	2월졸업	총 회원
인 문 대 학	308	7,872
사회과학대학	388	10,016
자연과학대학	285	7,960
가 정 대 학	128	3,024
간 호 대 학	63	2,878
경 영 대 학	178	4,605
공 과 대 학	916	32,836
농업생명대학	341	17,436
문리과학대학	-	9,731
미 술 대 학	98	4,041
법 과 대 학	179	13,586
사 법 대 학	359	22,012
상 과 대 학	-	6,723
수의과학대학	78	1,844
약 학 대 학	65	5,333
음 악 대 학	161	5,927
의 과 대 학	181	9,515
치 과 대 학	116	5,213
대 학 원	2,564	57,912
경영대학원	-	701
교육대학원	-	653
보건대학원	63	2,405
사법대학원	-	508
신문대학원	-	264
행정대학원	73	3,587
환경대학원	71	1,626
소 계	6,625	238,248
준 회 원	-	13,338
(단 기 과 정)	-	6,908
총 계	-	258,584

농업생명과학대학 2003년 관악으로 이전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 李敦求)은 지난 2월 24일 관악캠퍼스내 자연대 운동장에 신축이전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李基俊총장, 金成勳농림부 장관, 李敦求농생대 학장, 尹勤煥농대동창회장 등이 참석했다.

2003년 3월 완공될 농생대 교사는 부지 4천여평, 연건평 1만 4천여평 규모(지하 2층, 지상 9층)로 신축된다.

분당 모교 병원 발전후원회 발족

재원부족으로 2002년 준공 차질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모교 병원이 지난 96년에 착공한 국내 최초의 성인병 전문 병원인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이 재원부족으로 개원이 지연되고 있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8백병상 규모로 2000년 개원 예정이었던 분당 모교병원(사진 조감도)은 총 사업비 3천8백억원 중 약 1천7백억원이 부족하여 2002년으로 준공이 연기됐으며 이 또한 불투명한 상태이다.

모교 병원의 재정 형편상 자체 자금 확보가 불가능하고 정부지원 또한 한계가 있어 분당 병원 건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權彝赫 前모교총장을 비롯 모교 병원을 아끼는 재계, 관계, 언론계, 문화계 인사 30여명이 주축이 돼 지난해 9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회장 權彝赫)」를 결성했다.

현재 발전후원회는 교직원들 비롯 3백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약 7억여원의 후원금을 약정받는 등 후원금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모금된 후원금은 분당 병원의 시설비, 의료장비 구입비, 교수요원 연수 재원, 노인질환에 관한 연구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발전후원회는 성인병 예방과 치료라는 범국가적 의료사업을 펼치게 될 분당 모교 병원이 2002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모교를 사랑하는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기다리고 있다.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사무국: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교 병원내 소아 별관 5층, 전화: 760-3771~2, 계좌번호 조흥은행: 367-01-195409)

(變)

사회과학대 黃秀益학장 사범대 曹昌燮학장 선임

지난 2월 16일자로 사회과학대학 학장에 정치학과 黃秀益교수를 선임했다.

신임 黃학장은 64년 문리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67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편 2월 24일자로 독어교육과 趙昌燮교수가 사범대학 학장에 선임됐다.

신임 曹학장은 65년 사범대 독어교육과를 졸업하고, 67년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宋東準교수 등 18명 정년퇴임

지난 2월 29일 교수 18명의 정년퇴임식이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열렸다.

이번에 퇴임한 교수명단은 다음과 같다.

宋東準교수(독어독문학), 朴亨達교수(언어학), 尹在漢교수(수학), 朴仁源교수(화학), 李弼宇교수(생물자원공학), 柳順昊교수(응용생물화학), 韓仁圭교수(동물자원학), 金東岩교수(동물자원학), 黃禎奎교수(교육학), 李相翊교수(국어교육), 黃載璣교수(지리교육), 李範哲교수(체육교육), 金炳珪교수(제약학), 姜碩熙교수(작곡), 金時煌교수(의학), 金晉煥교수(의학), 白相豪교수(의학), 韓萬靑교수(의학). 〈프로필 다음호에 게재〉

金在淳회장 졸업축사 요지

尊敬하는 李基俊총장! 教授와 敎職員 여러분! 學父母님과 兄弟 姊妹 여러분!

歷代 總長과 同門 先後輩 여러분! 그리고 學士, 碩士, 博士學位를 받으시고 情든 冠岳 교정을 떠나 닛선 未來를 向하여 門을 나서는 사랑하는 後輩 여러분!

먼저 本人은 서울大 20萬 同門을 대신해서 오늘의 榮光이 있기 까지 피땀으로 뒹바라지 해오신 學父母님께 그리고 精誠으로 가르침을 베푸신 敎授님들의 恩德에 대하여 滿腔의 敬意와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바야흐로 世界化, globalization의 큰 물결이 온 世界를 바꾸어 놓을 기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는 想像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新世界가 誕生하고 있습니다.

겹겹으로 가로막혀 있었던 온갖 장벽—國籍이며, 國境, 年齡, 性別, 階層, cost 등을 뛰어넘어 個個人이 인터넷을 통해서 直接 世界와 access하여 네트 워크함으로써 새로운 表現 새로운 去來手段을 손에 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個人的 프런티어가 一時에 넓어지고 때와 경우에 따라서는 個人的 힘이 지금까지보다 몇 배, 몇 乘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IT(情報技術)革命은 이데올로기가 아니지요. 오늘날 젊은 世代가 일으킨 人類史上 初有의 世代革命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優秀한 能力을 가진 人材들이 活躍할 수 있는 場所는 이미 全世界로 擴大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감싸왔던 企業이나 國家라는 틀 속에 우리 個個人들을 붙들어 놓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은 우리들 自身, 國境을 초월하여 評價되는 眞正한 제너럴리스트나 需要度가 높은 特定分野의 specialist처럼 치열한 國際競爭에서 이겨내는 能力의 所有者일 것이며 그것도 韓國 內의 우물안에 勝者가 아니라 global化한 世界 속에 자리잡을 수 있어야 살아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global의 물결은 「個人」의 世上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물결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強한 個人」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世紀가 「組織의 世紀」였다면 21世紀는 「個人的 世紀」라고 할 것입니다. 自立한 個人, 強한 個人이 文化와 價値를 創造해가는 世上이 될 것입니다.

21世紀 문턱에 서서 내 나라에 活力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基本的 個個人을 注目해야 합니다. 21世紀를 이끌어 가는 原動力으로서 個人的 先驅性, 創意性, 使命感에 기대를 걸어야 합니다.

오늘 campus를 떠나는 後輩 同門 여러분!

여러분의 世紀가 왔습니다. 정녕 할 일이 많은 2000년에 들어섰습니다. 오랜 歲月 지나온 數 世紀 동안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우리 民族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祖國의 未來를 찬란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同窓會 入會를 歡迎합니다.

학위수여식 행사 일정관계로 직접 축사를 하지 못함.
(준비한 축사 내용임)

李基俊총장 졸업축사 요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이 뜻깊은 시점에 영광스러운 학위를 받게 된 진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하늘을 찌르는 기백과 열정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게 될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저버리고서는 진정한 세계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출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은 당연히 國籍을 초월하는 것이어야 하겠지만, 여러분의 정신과 기본 자세는 우리 민족과 국가에 焦點을 맞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흔히 리더십, 협동심, 애국심을 말합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세계의 모든 인류들과 더불어 살겠다는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이제 국가와 민족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 갓아야 할 빛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회에 나가 어느 분야, 어느 직종에 종사하든 간에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친지, 동료 학우와 은사, 사회와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만큼, 언제나 그 이상으로 베풀 줄도 아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기와 글로벌 시대는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고된 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교육 시장은 일부 최우수대학이 독점하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밤낮과 계절을 가리지 않고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정보화 캠퍼스(electronic campus)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시아 제일의 대학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세계 최우수대학의 班列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으면 우리 대학의 미래는 물론 국가와 민족의 장래 또한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여러 학문 분야에서 세계 最初, 세계 最高, 세계 唯一의 연구 업적을 생산하는 대학이 되어야만, 21세기와 글로벌 시대에 맞는 가치관, 인간관, 세계관 그리고 사명감을 지닌 지도자를 육성할 수 있고, 국가 사회 및 인류 복지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개혁과 발전의 청사진을 놓고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를 떠난 이후에도 한결같이 서울대학교가 「세계적인 종합연구대학」으로 가는 길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
문선

新刊

■『정의의 변호사』

되라 하셨네

—李兌榮선생 유고변론집



李兌榮 (49년 法大卒) 동문 서거 1주기를 맞아 李동문의 변론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기관지 「가정상담」에 매월 기고했던 글을 모아 엮은 책.

변론 하나 하나마다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연민과 부당한 현실을 개혁하려는 진정한 변호사로서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刊·값 15,000원〉

■조선시대

농업과학기술사

—金榮鎭·李殷雄 著



인문사회 연구회 金榮鎭 (57년 農大卒) 이 사장이 모교 李殷雄 (45년 水原農專卒) 명

예교수와 함께 우리 농업기술을 과학기술적 안목에서 집대성한 책을 펴냈다.

조선시대 이양법, 논의 이모작과 덧거름 사용의 발전과정 등을 균형있게 통사적으로 다루고 있다. 〈서울대출판부刊·값 18,000원〉

■봄·여름·가을·겨울

—盧淑子 著



동양화가 盧淑子 (66년 美大卒) 동문이 지난 2월 일곱 번째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그렸던 1백50여종의 야생화를 비롯한 우리 꽃을 사계절로 나눠 한 권의 책에 담았다. 〈예서원刊·값 40,000원〉

■제3의 선택

—李鍾律 著



재단법인 통일시대연구소 李鍾律 (64년 文理大卒) 이 사장이 새 천년 한국의 야망과 뉴 리더십을 담은 담론집을 펴

냈다.

우리가 현재 당면한 난제들에 대해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제3의 길과 새로운 선택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M&B刊·값 7,000원〉

■한영·영한 속담집

—梁熙玩·김명완 編著



육군사관학교 영어과 梁熙玩 (69년 文理大卒) 교수가 김명완 강사와 공동으로 동서양 속담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

4천여개의 한글 속담을 영역, 그 의미를 영어 사용권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설해 놓았으며, 우리 속담과 비슷한 영어 속담과 격언 1천5백여개를 추려 뒷부분에 함께 실었다. 〈봉명刊·값 12,000원〉

公演

■金玄淑 플룻 독주회

—3월 15일 세종문화회관

경원대 金玄淑 (78년 音大卒) 교수가 韓亨實 (81년 音大卒) 동문의 피아노 반주로 플룻독주회를 갖는다. 글루크, 마르티누, 토니제티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남궁플룻 598-0720〉

■林慶園 첼로 독주회

—3월 21일 예술의 전당



성신여대 林慶園 (85년 音大卒) 교수가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첼로독주회를 갖는다. 바흐, 브리튼, 슈트라우스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세실예술기획 583-6295〉

■裴敬美 오보에 독주회

—3월 27일 예술의 전당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오보에 수석연주자인 裴敬美 (89년 音大卒) 동문이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열고 텔레만, 바르토크, 힌데미트, 생상스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세실예술기획 583-6295〉

〈정리=安興婁기자〉

동문의 소리

님과 벗 그리고 아름다움

원고 청탁을 받고 문득 뒤돌아보니 서울大인이 된지 어언 35년, 내 나이 쉰 셋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까지도 인기가 시들지 않는 법대·의대·공대를 마다하고 농대로 진학한 것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일까? 아니면 운명적 선택이었을까?

「님」과 「벗」과 「아름다움」 아름다움은 「베품」에서 나오고 「베품」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내가 가진 적은 것도 기꺼이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다. 서로 감사하고 서로 베풀 때에 우리 세상이 얼

마나 아름다울까. 틈날 때마다 즐겨 노래 부르는 素月の詩는 「님」과 「벗」의 소중함을 늘 일깨워 준다.

벗은 설움에서 반갑고 님은 사랑해서 좋아라 딸기꽃 피어서 향기로운 때를

고추의 붉은 열매 익어가는 밤을

그대여 부르라 나는 마시리 서로 사랑하는 가족과 마음을 나누는 벗들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로 내 잔이 차고 넘친다.

삶이란 되짚어 살아볼 수 없



으니 나의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이제껏 살아왔다. 거창한 야심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는 잊지 않았다.

흔적을 남기려 애쓰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다. 님과 벗의 가슴속에 머물다 쓰러져 버리는 그리운 추억이고 싶다. 孫基成 (69년 農大卒) 옥전상사 대표

“동문 중에는 없을 꺼야”

작년에 업무차 일본 동경을 다녀오는 비행기 안에서 목격한 일이다.

대한항공편이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었고 일본인과 유럽인들도 몇 명 동승하였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6~7세 가량의 남자아이와 8세 정도 되어 보이는 듯한 여자아이를 동반하고 있었는데, 해외여행길에서 귀국하는 듯 보였다. 여자아이는 좌석벨트를 풀고 신을 신은 채 좌석에 올라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남자아이는 옆에 앉아 있는 아빠의 뺨을 수시로 찰싹찰싹 때리는데, 부모는 말리지도 않고 아이들

의 행동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었다. 옆에 앉아 있던 외국인이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보였다. 자녀를 자유분방하게 키우는 외국에서도 엄격히 해야 할 때는 오히려 우리네 부모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너무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최근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이러한 일들이 공공장소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난다.

몇 안되는 내 자식이 너무 귀여워서인지 몰라도 올바른 일을 해도 그대로 받아주면서 주위의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양육된 자녀들이 성장하면 과연 우리 사회의 구성



원으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차세대 자녀들의 교육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 점점 이기적으로만 변해 가는 우리 세대가 이러한 잘못된 자녀교육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서울대학교 동문 중에는 이러한 부모가 한 명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으리라고 확신한다. 金河俊 (77년 師大卒) 해외개발(주) 대표

천년만의 기회 또는 재앙

미국 마이크로소프트社의 회장 빌게이츠는 다가올 10년 동안에 지난 50년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상당부분의 30대 후반 이후의 사람들은 요즘의 신문을 보면서 현기증과 함께 당혹감을 느낄 것이다. 『나는 과연 이 시대의 주역인가 아니면 주변인인가?』하고 자문해 본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 자문해 봐야 한다. 『당신은 과연 이 시대를 주체적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뒤흔들려 가는가?』하고 말이다.

도대체 요즘의 미친(?) 변화를 가능케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바로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전 세계의 컴퓨터, 아니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다. 이 인터넷으로 인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극복하고 같은 시간대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디지털이란 문자 같은 텍스트, 음성, 사진 등 모든 정보형태를 0과 1, 이 2개의 숫자(디지털)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다. 디지털 기술에 의하여 텍스트, 소리 및 영상이 결합 가능하게 되어 멀티미디어 시대를 창출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로 보내고 받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사람과 사람, 비즈니스와 비즈니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한마디로 경쟁상황의 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제 경쟁이 글로벌하고 전 방위적으로 바뀌었다. 국내내, 기업내가 아닌 전 세계가 같은 시간



과 공간에서 경쟁해야 하는 글로벌 경쟁상태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가? 이런 변화의 주인공이 시대의 왕따인가? 이런 변화를 즐기고 있는가 아니면 주눅들어 눈치만 살피고 있는가? 자, 용감하자. 하나도 어렵지 않다. 문제는 컴퓨터가 아니다. 변화를 활용하고 선도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람이다. 당신은 어려운 과거를 훌륭히 헤쳐왔으며, 미래를 선도할 능력이 있다. 천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이 기회가 재앙이 되어 시대의 왕따가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자. 田炳文 (83년 法大卒) 의제큐티비컨설팅 대표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理事：2000년 1월 5일~2000년 1월 27일·一般：2000년 1월 6일~2000년 1월 26일〉

이 사

◇看護大學

▲이은옥⁶³모교 교수

◇工科大學

▲김정우⁶¹우미자원기술사社
▲허인석⁷²우성산업 대표

◇農科大學

▲김상호⁶²대풍상사(주) 대표
▲김영준³⁸가락중앙종친회장

◇文理科大學

▲이상수⁴⁹KAIST 교수
▲이영훈⁶⁸한국사회硏 소장
▲황인길⁶²아남반도체 부회장

◇法科大學

▲강익엽⁴⁹변호사
▲김대환⁶⁵수원지방법원장
▲김영재⁶²변호사
▲김진우⁵⁶前헌법재판소
▲박원철⁶⁵구로구청장
▲안병훈⁶¹조선일보 부사장
▲유덕택⁵⁸인천일보 사장
▲윤용호⁷⁵변호사
▲장만호⁷⁸대한투자신탁
▲주광일⁶⁵국민고충처리委

◇師範大學

▲강대은⁵⁸삼선교약국 약사
▲김희분⁵⁷前연서중 교장
▲박남기⁵⁵前고척도서관장

◇商科大學

▲김덕기⁵⁶펜타항공 대표

▲이성구⁶⁷동방포루마 대표

◇獸醫科大學

▲김진구⁶⁷성일약품 사장
▲김호훈⁶⁴국립보건원 과장
▲서동일⁵⁹이태원가축병원장
▲이기주⁶⁷조흥건설산업

◇藥學大學

▲고형훈⁶³고일약국 약사
▲도광룡⁷⁶홍진약국 약사
▲오연준⁶⁰효진물산 대표
▲윤효선⁶⁷삼선교약국 약사
▲한상후⁶⁸내외신약 대표

◇醫科大學

▲김성권⁷⁴모교병원 교수
▲김영태⁷¹서울중앙병원
▲성상철⁷³모교병원 교수
▲이상완⁶¹대전성심병원장
▲이진용⁶³모교병원 교수

◇齒科大學

▲강태성⁷⁷강태성치과 원장
▲안병근⁶⁸한강성심병원 과장
▲윤창혁⁵⁹윤치과 원장
▲이용오⁶⁸이용오치과의원

◇經營大學院

▲양승현⁷¹(주)태농 대표
▲이재호⁷⁰前한국전자통신研

일 반

◇人文大學

▲김지영⁹⁴

◇社會科學大學

▲방진욱⁹⁷ ▲양봉렬⁷⁶ ▲이윤섭⁸⁹
▲이한방⁸¹ ▲최원익⁷⁸

◇自然科學大學

▲신용순⁸¹

◇看護大學

▲유문자⁶⁸ ▲주세진⁸²

◇經營大學

▲강문중⁸³ ▲고영진⁹⁶ ▲신상준⁹⁴
▲전재형⁹⁷ ▲지성배⁹⁰

◇工科大學

▲곽은영⁶⁹ ▲김양성⁸² ▲김정태⁸⁰
▲김종수⁵² ▲남오석⁸¹ ▲도복준⁶⁷
▲민영기⁸⁶ ▲박규찬⁸³ ▲박상녕⁷⁸
▲박희수⁵⁸ ▲서동일⁸³ ▲신경식⁵⁵
▲신기룡⁷⁴ ▲신형철⁸⁵ ▲여인선⁷⁹
▲염희택⁴⁴ ▲염희택⁴⁹ ▲유명식⁵²
▲윤원영⁸² ▲이건홍⁷⁹ ▲이준혁⁸⁹
▲이현규⁸⁵ ▲임충혁⁸⁷ ▲정인용⁵²
▲정재호⁹² ▲조희찬⁷⁸ ▲채경선⁸⁷
▲천의영⁸⁵ ▲최안분⁵³ ▲추교승⁸⁸
▲홍 윤⁷² ▲홍만기⁵⁸

◇農科大學

▲김길만⁹⁵ ▲김상철⁵³ ▲김영호⁷⁷
▲성삼경⁶⁵ ▲이광웅⁶⁸ ▲이순욱⁷⁴
▲이춘영³⁹ ▲이형규⁸⁰ ▲정경근⁹⁵
▲정용문⁷¹

◇文理科大學

▲권태환⁶⁵ ▲김연숙⁷² ▲박정미⁶⁶
▲서재화⁵¹ ▲신원영⁶⁷ ▲장화자⁵⁵
▲정행원⁶³ ▲조남성⁷⁰ ▲한남규⁷⁰

◇美術大學

▲김선미⁹³ ▲박남희⁷⁴ ▲우계숙⁷⁶
▲조재경⁸⁰

◇法科大學

▲김학문⁶⁷ ▲노재원⁵¹ ▲유 언⁶⁷
▲윤영철⁶¹ ▲이대우⁷¹ ▲이종혁⁹¹
▲정규승⁷⁵ ▲최은배⁸⁹

◇師範大學

▲권오승⁷⁶ ▲김영숙⁵⁸ ▲김진영⁸⁰
▲변모은⁹⁴ ▲신재철⁷³ ▲이석규⁷⁰
▲이흥훈⁸¹ ▲임영관⁶¹ ▲조한익⁶⁰
▲진현선⁹² ▲최경림⁵⁸ ▲허도성⁸⁴

◇商科大學

▲김종순⁵² ▲조의상⁵⁶ ▲진창갑⁵⁹

◇獸醫科大學

▲성백관⁷³ ▲이종경⁷⁹ ▲이종덕⁶²
▲정진기⁵⁶ ▲최순철⁸⁹

◇藥學大學

▲박명환⁷⁷ ▲박준욱⁵⁹ ▲한정연⁸⁹

◇音樂大學

▲권오성⁶³ ▲김미경⁸⁵ ▲김성심⁶⁸
▲장경애⁷²

◇醫科大學

▲민욱기⁸⁰

◇齒科大學

▲고영택⁶² ▲김선영⁸³ ▲김진규⁶²
▲박이자⁶⁶ ▲박재관⁷⁵ ▲박희철⁵⁵
▲백승진⁸³ ▲이석행⁶² ▲정성택⁷⁵
▲최한업⁷³

◇大學院

▲김병철⁹³ ▲김항목⁷⁶ ▲채의업⁶²

◇經營大學院

▲김한준⁹¹

◇環境大學院

▲안영식⁸⁴ ▲우명규⁷⁶

◇최고경영자과정

▲강진경⁴³ ▲김동엽⁶ ▲박찬웅³⁷
▲최상남³¹

◇최고산업전략과정

▲나재암⁷ ▲이정수²

◇국가정책과정

▲고한풍²⁶ ▲김지숙⁴⁷ ▲이보우³⁵
▲조남성²⁴

◇고급금융과정

▲김병하³ ▲서학석¹⁰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구자목¹ ▲김동규⁴ ▲박래춘⁴
▲신형순⁵ ▲유제복⁵ ▲이재덕⁵
▲이재원⁴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강창남⁴ ▲강태만⁴ ▲김기영¹
▲김수근² ▲석창덕¹ ▲손현구³
▲이원재³

◇가정간호수습과정

▲신길남³

지 부분 담 금

◇태국지부：556,500원

월 계：6,186,500

누 계：9,436,500